

건연시 과거편 지문 스크립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봄	수업듣기	도서관 공부		
여름	놀이공원	방학이벤트	도시락	학교 프롬(작성중....)
가을	학식	소풍 가기	브랜드찾기	
겨울			브랜드식사	졸업식(추가 필요....)

게임 시작

define brandonpoint = 0

define truthpoint = 0

#게임 배경 소개 label start

label start:

scene bg blue
with fade

play music "/bgm/Floaters.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조직, 밀레니온 —"

"이 마을에서, 아니 어쩌면 이 국가에서 가장 큰 범죄조직이다."

"밀레니온에서는 경매업, 사채업과 같은 뒷세계 일부터, 주식 투자, 지원, 은행, 석유
추출업까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란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

"라고도 불린다고 하면, 알아듣기 쉬울까."

"그들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

"말단까지 합하면 조직원은 무려 8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밀레니온의 보스, 소위 「빅 대디」 ,"

"빅 대디의 곁에 머물 수 있는 건 극소수, 대략 150명."

"그 극 소수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빅 대디의 가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세 젊은이가
있다."

play sound "/bgm/button.wav"
show brandon default

with dissolve

"브랜드 히트."
"조직 내 최고의 총 실력을 자랑하는 과묵한 사나이."
"해리 맥도웰, 마리아 아사기와 친분관계가 있다."

hide brandon

play sound "/bgm/button.wav"
show harry default

with dissolve

"다음으로, 해리 맥도웰."
"밀레니온 내 신흥 주자이다."
"놀랍게도, 조직에 들어온 지 몇달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다."

hide harry

play sound "/bgm/button.wav"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마리아 아사기."
"해리 맥도웰과 브랜드 히트의 절친한 친구."
"또, 빅 대디와의 연관이 누구보다도 깊은 인물."

hide maria

scene bg dark
with dissolve

play sound "/bgm/button.wav"

show brandon default at right
show maria default
show harry default at left

"그리고, 이야기는 이 셋으로부터 시작된다"

play sound "/bgm/stepstone_5.wav"

"Gungrave 팬게임"

play sound "/bgm/stepstone_5.wav"

"Made by"

play sound "/bgm/stepstone_5.wav"

"Team JipdanJasal"

play sound "/bgm/stepstone_5.wav"

"START"

hide brandon

hide maria

hide harry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room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브랜든..."

m "브랜든 히트."

"몇년 전, 칼드웰 씨의 양녀 격으로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

"브랜든은 내가 살던 마을에서 유명한 불량배였다."

"해리 맥도웰, 브랜든 히트, 그리고 그 패거리들..."

"영 어울릴 일이 없다고 생각한 그룹이지만, 불량배에게 습격당한 나를 브랜든이 구해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브랜든에게 호감을 가진 건 그때부터였을까 —"

hide maria

show bg poor_road with fade

stop music fadeout 3.0

"주말에 친구들과 놀다가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길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며 이리저리 둘러보며 사냥감을 물색하는 불량배들이 보였다."

"난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빠른 보폭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눈에 띄고 말았다."

show mob default at right with easeinleft

show maria default with easeinright

mob "어이 거기—"

m "....."

show mob2 default at left with easeinleft

mob "이봐— 거기 노란 머리 여자, 잠깐 우리 좀 보시지."

m "..저요...?"

mob "어 그래 당신 말야."

"그들이 말을 걸어 오며 갑자기 내 팔을 잡는 바람에 흠칫 놀랐다."

"난 그들을 향해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불쾌한 내색을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 완전히 붙잡혀버렸다."

hide maria

show mob default at left with easeinleft

show mob2 default at right with easeinright

show mob3 default with easeintop

mob "오오 꽤 이쁘게 생겼는데?"

mob "이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mob "우리 잠깐 어디서 술이나 마시며 같이 얘기좀 해볼까?"

mob "다른 것도 같이 해주면 더 좋고 말이야~ 킥킥덕."

m "이, 이거 놓으세요."

hide mob3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붙잡힌 팔에 힘을 줘보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내 등을 떠밀며 구석으로 몰고 있었다."

"곤란한 상황이 가중되어 다급해진 난, 그들에게 저항하며 말로 위협을 시도했다."

show maria angry

m "자꾸 이러면 소리를 질러 버릴거야..!"

mob "호오~ 그러서? 맘대로 해 봐."

mob "그러면 오히려 네가 더 불리할 걸?"

mob "공개적으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고?"

show maria eyeclosed

m "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채로, 그들을 마주하며 몸이 떨려왔다."

play sound "/bgm/Breathing_Running.mp3"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열심히 둘러보다가, 문득 이 곳으로 뛰어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hide maria

hide mob3

show brandon default with easeinbottom

"그가 바로, 브랜든이었다."

"그는 이 곳으로 도착하자마자 불량배들 중 하나에게 주먹을 내질렀다."

play sound "/bgm/Body_Punch_Series.mp3"

hide mob

hide mob2

show brandon default with vpunch

"뒤이어, 그에게 달려드는 나머지 둘한테도 다리를 뺨어 동시에 쓰러뜨렸다."

play sound "/bgm/Body_Fall.mp3"

m "....?!"

"난 어안이 빙빙하여 그저 가만히 서있다가, 그와 함께 달려온 동료 중 한명에게 붙들려 구석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scene bg poorlandscape with fade

"상황이 정리되고, 난 그들에게 다가가 통성명을 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

play music "/bgm/lt_s_All_Happening.mp3" fadeout 3.0 fadein 1.0 loop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show harry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show brandon default with dissolve

m "저기.. 구해줘서 고마워."

h "웬 이정도 가지고. 감사 인사는 저 녀석에게 하는게 좋을 거야."

m "에...?"

h "브랜든이 먼저 달려가서 우리도 따라온 거거든. 헤헤."

m "아, 그런 거야..? 알았어."

"해리의 말을 듣고 난 고개를 돌려 브랜든을 보았다."

show brandon default_blush

"그는 나를 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급히 얼굴을 돌려버렸다."
"왜 피한 거지..? 의아한 느낌으로, 난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show maria smile at right with dissolve

m "저기..."
b "...?"
m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show brandon eyeclosed with dissolve

b "....."
b "....어어."
m "....?"

hide brandon
show maria sad at right

"그는 짧게 대답만 하고, 또다시 얼굴을 돌려버렸다."
"대체 이유가 뭐지...?"
"분명 가장 먼저 달려와서 날 구해준 건 그 자신인데, 지금은 어째서 피해버리는 걸까."
"고개를 갸웃 하며 그를 보고있자, 해리가 다가와서 설명을 해주었다."

show harry smile at left

h "아하하— 그녀석은 원래 과묵해서 말 같은 건 잘 안 하는 타입이야. 이해해줘."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아... 그래..?"

show brandon default with dissolve

b "....!"
h "엇, 갑자기 왜 째려보는 거야 브랜든."
h "...아아— 설마,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던 거였어? 아하! 그래서 그렇게 바로 달려간 거구나!"
m "뭐...?? 저기 잠깐 —"

show maria default_blush at right with dissolve

"해리의 갑작스런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show brandon default_blush with dissolve

"브랜든을 돌아보니, 그도 얼굴이 살짝 상기된 듯 보였다."

"해리는 재밌다는 듯 웃어대며 동료들에게 다가가 그를 놀리려 했다."

"난 말리려 했지만, 왠지 부정하고 싶지 않아 말로만 반박했다."

h "야 케니, 조리스, 이거 봐라! 브랜든이 우리보다 먼저 솔로를 탈출한다~!"

k "뭐어~? 이야 뭐야 브랜든 — 이렇게 금방~ 어쨌든 축하한다!"

m "머, 멋대로 정하지 말라고...!"

b "....."

"그렇게, 브랜든과 나, 우리의 만남은 시작된 것이었다."

#대학 생활 시작

#Interlude

stop music fadeout 3.0

scene bg room2

with fade

m "이사오고 나서는 영 연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걸..."

m "브랜든, 잘 지내고 있는 걸까."

play sound "/bgm/Mechanical_Clock_Ring.mp3"

m "아차, 학교에 늦어버려...."

"그녀의 오랜 친구, 브랜든 히트는 그녀의 거처가 바뀐 후 연락이 뜸해졌다."

"브랜든에 대한 생각을 잊어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

m "우선은 내 생활에 적응하는 것 부터니까."

m "...그래야, 인사 없이 떠나온 것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

hide maria

scene bg poorlandscape

with dissolve

"칼드웰 씨에게 맡겨진 건, 삼촌 덕분이었다."

"가난한 마을에서 삼촌과 함께 살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삼촌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 때 나를 찾아온것이 칼드웰 씨였다."

"삼촌과 과거에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정확한 사정을 들은 바는 없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그래도, 그 때의 나에게, 칼드웰 아저씨는 구원자같은 분이셨지...."

m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내게 큰 도움을 주셨어."

"칼드웰 아사기 씨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시다."

"엄청난 대지주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신 듯 하다."

"처음에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기댈 데 없는 나를 구원해주신 분과도 다름없다."

"덕분에 마을을 벗어나 대도시로 나오고, 대학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show bg univ

with fade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m "내가 대학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지..."

"원래 살던 마을은, 그렇게 잘 사는 마을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범죄, 사건... 굶주린 아이들이나, 생기없는 사람들."

"여러 모로 칙칙한 도시였다. 그런 도시에서, 삼촌은 나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자라게 해주셨다."

"그래도,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생각 같은 건 해본 적 없다."

"사실,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 하던 학생도 아니었고."

show maria smile at right

m "출석에 늦지 않게... 수업을 다녀와야겠어"

stop music fadeout 4.0

play sound "/bgm/Voices_On_Street_Accent.mp3"

"도시로 이사와서, 학교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모두 교양있고 밝은 친구들이었다."

"그렇지만... 가끔씩 전에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수업을 끝나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친구들과 나눴다."

play sound "/bgm/button.wav"

b "마리아."

"순간, 너무도 친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혹시나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순간 나는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엔, 너무도 오랜만인, 그러나 기억 속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의,"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moveinright

"브랜든이 서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정지한 채, 나는 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보았다."

m "브랜든...?"

b "....마리아."

show brandon smile at left

"미소를 짓는 그를 보자마자 난 그의 품 안에 달려들었다."

"브랜든은 미소를 띄며 나를 안아주었다."

"브랜든이다."

"브랜든 히트, 나의 친구."

show maria smile at right

m "어떻게 여기에 온거야?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b "여러 가지로, 소식을 들어서 왔어."

b "마리아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가, 그가 정말 이 곳으로 왔다."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자 정말로 그가 이 곳에 와주었다."

m "말도 없이 이사를 와버려서...미안해."

m "브랜든, 전보다 혈색이 좋아보여. 잘 지내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b "응.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네."

m "응.. 그래..? 고마워."

""

"그를 마주치자 깨달았다."

"그동안 그가 너무나도 보고싶었다."

show maria smile_blush at right

"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원가의 공허한 느낌... 빈 마음 —"

"그간의 외로움, 왠지 모를 그리움"

"모두 브랜든을 향한 것이었는데."

"브랜든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그저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show brandon smile at left

b "....."

"브랜든은 가만히 웃어보였다."

"전부터 과묵한 남자였다. 이런 식으로 — 말수가 많은 타입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해보이는 남자였다."

"오늘도, 그저 내가 여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마주칠 때 까지 학교 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거겠지."

"잠시동안 시선교환을 하다가, 브랜든이 갈 준비를 하듯, 뒤돌아선다."

m "벌써 가는거야?"

b "응... 일이 있어서."

m "그렇구나... 브랜든도, 여기에서 일을 하는구나. 일은 힘들지 않고?"

b "응. 할만해."

m "그래, 다행이다. 잘가. 다음에.... 또 보자."

b "그래."

m "....."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저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다."

"이렇게 만났으니,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지...?"

hide maria

hide brandon with moveoutleft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river1

play sound "/bgm/stepstone_1.wav"

play sound "/bgm/stepstone_2.wav"

play sound "/bgm/stepstone_3.wav"

play sound "/bgm/stepstone_4.wav"

play sound "/bgm/stepstone_5.wav"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친하지 않던 사이가 아니냐면, 절대 아니다."

"외려, 친애를 넘어 사랑의 감정까지 나눴다고 마리아는 생각했다"

play sound "/bgm/stepstone_6.wav"

play sound "/bgm/stepstone_7.wav"

play sound "/bgm/stepstone_8.wav"

"그러나, 왠지 서로 너무 서툰 나머지, 따로 연락을 하거나 한 적은 없었다."

"간만에 만난 그는 전보다 더욱 남자다워진 모습이었다."

"브랜든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기 시작한다..."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room2
with dissolve

stop music fadeout 4.0
play sound "/bgm/Prelude_No_11.mp3" fadeout 1.0 fadein 1.0

"브랜든을 학교에서 만나고 며칠, 그는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마 학교 근처의 숲, 오가는 길목, 그 어딘가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오늘은 왠지 평상시보다 더욱.. 외로운 느낌이다."
"원래부터 행동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그이지만, 가끔은,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화해보고 싶다."

show maria default

m "전에는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m "서로 전화를 주고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지..."

show maria eyeclosed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다."
"만나고 싶다면 그저 서로의 집을 찾아가면 그만,"
".... 사실은. 브랜든이 거의 마리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면, 브랜든, 그는 마리아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는 듯, 원하면, 원하는 대로 —"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을 이어주었던 텔레파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듯 했다."
"그 점이 현재 날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이다."

show maria default

"그렇기에, 나는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나는... 브랜든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를..."

m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play sound "/bgm/button.wav"

menu:

"브랜든에게 전화한다.":
"아무래도 연락한지가 너무 오래 되었다."
"데면데면한 사이도 아니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jump yes_call

"브랜든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낮간지러웠다."
"전화로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jump no_call

label yes_call :

\$ brandonpoint += 1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뚜우— 뚜우—"

"일 때문에 수도 없이 들었던 전화 연결음 소리인데, 지금은 평상시보다 몇 배나 길게만 느껴진다."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브랜든! 나야, 마리아."

b "...."

m "...브랜든? 거기 있는 것 맞지"

b "아아. 맞아. 마리아."

m "정말...전화를 받을 때 정도는 대답을 하는 거라구."

show brandon smile at left

"브랜든은 배시시 웃는 소리를 냈다."

m "그렇게 웃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걸"

m "저, 브랜든. 나 말야. 이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

b "알고 있어."

m "응, 칼드웰 아사기라는 분 댁에서 묵고 있어. 믿어도 되는 분이야."

show brandon oh at left

b "칼드웰...아사기?"

m "응. 그러고보니 어느 분께 내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누구시더라?"

b "아, 아냐. 해리가 마리아의 대학 얘기를 전해줘서."

"해리? 해리 맥도웰의 그 해리를 말하는 것인가"

m "해리? 해리도 같이 있는거야?"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b "아, 응. 같이 일하고 있어."

m "전부터 같이 다니더니만, 일까지 같이 하는거야? 언제 한번 셋이 같이 만나는 게 좋겠어!"

b "아아... 그러자."

hide brandon

"통화가 끝난 순간,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m "....역시, 전화하길 잘했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이 한꺼번에 수증기처럼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다."

"브랜든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마치 꿈이라도 꾸 듯 한 느낌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분명, 방금 그와 전화를 통해 대화했던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m "자주는 무리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를 머릿속으로 여러번 되새기며, 기분좋은 잠자리에 들었다."

hide maria with fade

jump interlude1

label no_call :

"전화기를 들던 손을 내려놓고, 다시 앉아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쉽사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책읽기를 포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는 한, 그를 만날 수 있는 날은 앞으로도 많을 테니까."

"꿈에서라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졸린 눈을 감았다."

hide maria with fade

jump interlude1

#대학생활 진입 label interlude

#두번째로 대학교를 찾아온 브랜든

label interlude1 :

stop music fadeout 2.0

scene bg room
with dissolve

play music "/bgm/Concierge.mp3" fadeout 1.0 fadein 1.0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right

play sound "/bgm/button.wav"

"하루하루 대학생살에 적응하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브랜튼과의 재회를 생각하면 일상에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친구들 중 몇이 그때 그 남자는 누구냐며, 장난기있게 물어오기도 했다."

m "그러게."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우리는 무슨 사이일까?"

"브랜튼과는 전부터 오래 알고 지냈지만, 뭐라고 할까,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에 어려운 그런 관계였다."

show maria eyeclosed_blushed at right

m "남자 친구."

m "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겹연쩍지?!"

"브랜튼 히트, 아마 내 얼마 안되는 인간관계 중 제일 무거우면서도 편한 사람."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벌써 알고 지낸 지 꽤 오래 되었는데 말이지..."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univ
with dissolve

"학교를 향하는 발걸음이 바쁘다."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전과는 완전 딴판인 세계를 접하고, 또 독립을 하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요새 왠지 모르게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은, 기분 탓일까."

m "오늘 수업 중에 잠깐 졸아버린 것 같아..."

"어느덧 봄내음이 풍겨오고, 춘곤증이라도 찾아왔는지 오늘은 수업 중 깜빡 졸아버렸다."

"다음 강의는 철학인데, 괜찮으려나...."

"물론, 존 이유는 요새 밤을 설친 적이 많은 탓이기도 하지만...."

m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거나 하고. 잡다한 생각이 들어서 일찍 잘 수가 없었다구. 브랜든, 정말 —"

stop music fadeout 3.0

play sound "/bgm/stepwood_1.wav"

show brandon oh with moveinleft

play sound "/bgm/stepdirt_2.wav"

stop music fadeout 1.0

b "....?"

show maria frightened at right with vpunch

m "와악 — !!!!!!"

"!!!!!"

play music "/bgm/Wigs.mp3" fadeout 1.0 fadein 1.0

hide maria

"브랜든 히트!"

"혼잣말을 하면서 걸어가던 중 수풀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브랜든과 눈이 마주쳐버렸다."

"아니 정말, 찾아올거면 얘기를 하라구! 아니면 인기척이라도 내 줬으면 한다."

"과묵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 — 라지만 이 남자는 정말 엄청난 남자다."

b "마리아, 저기...."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브랜든! 깜짝 놀랐어. 다시 만날 줄이야...오늘도 나를 기다린 거야?"

b "응."

m "정말...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찾아오면 기다릴 필요 없을텐데. 브랜든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기만 할 뿐이야."

show brandon uh

b "....."

b "마리아가 그러기를 원한다면, 미리 말하고 찾아올게."

m "아냐, 브랜든. 이런 브랜든이니까 하루의 깜짝 선물 같아서 즐거운 점도 있는걸? 나는 지금의 브랜든이 좋아."

b "....."

"어라, 브랜든이 머뭇거린다."
"저번처럼 또 도망가려는 심상인가."
"그렇게는 안 될걸."

m "브랜든, 혹시..."
play sound "/bgm/button.wav"
menu:
"브랜든에게 수업을 같이 듣지 않겠냐고 묻는다.":
"오늘은 더 같이 오래 있고 싶었다."
"브랜든에게 수업을 같이 듣자고 물어보는게 좋겠다."
jump yes_lec

"브랜든에게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다.":
"저번에 헤어진 이후로 변변찮은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
"브랜든은 뭘 하고 지냈는지 안부를 물어봤다."
jump no_lec

#수업을 같이 듣는다.

label yes_lec :
\$ brandonpoint += 1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m "괜찮다면, 지금 철학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많이 지루할수도 있지만. 같이 들어보지 않을래?"

b "그래도 괜찮은 건가."

m "당연하지? 강의실이 너무 넓어서, 한두명 정도는 들어와도 모를 거야, 같이 가보자!"

b "수업... 은, 처음이야."

play sound "/bgm/stepwood_1.wav"

play sound "/bgm/stepwood_2.wav"

"브랜든의 손을 잡고 강의실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그대로 홍조를 띤 얼굴로 브랜든은 조용히 날 따라오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브랜든은 바로 회사를 들어갔다고 했으니, 대학교 생활이라거나 전혀 모를 테니 내가 경험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classroom
with dissolve

m "이 교수님이 말이야?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졸리다니까. 먼젓번에도 듣다가 졸려서 혼났어."

b "마리아가?"

m "응. 깜빡 졸 뻔 한 적도 있어. 시험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인걸."

b "마리아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m "브랜든이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아니라는걸 알 겠... 앗, 교수님 들어오셨다."

"교수님은 잠깐 출석을 부르시더니 학생이 너무 많자 그대로 수업을 시작했다."

"브랜드의 책은 오는 길에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뭐... 그냥 지루한 수업에 브랜드와 함께 들어오고 싶었다 — 그게 본심이니까, 수업을 브랜드가 어떻게 생각하던.. 아무래도 좋다."

m "으..음..."

"강의내용을 필기하다가 무심코 옆을 돌아봤는데, 브랜드가 의외로 엄청 집중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m "브랜드... 의외로 인문학 좋아하는 건가?"

"브랜드는 어느새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교수님의 말을 필기중이었다."

"책을 읽는 브랜드는 사실, 처음 봤다."

"싸움을 하는 브랜드이나, 운동을 하고 있던 브랜드가 아니라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펍 멋졌다."

show maria eyeclosed_blushed with fade

m "?!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show maria default_blush

"수업에는 전혀 집중이 되지 않고, 옆자리에 앉은 브랜드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브랜드는 책에 고개를 박고 계속 필기 중이었다."

m "정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브랜드의 모습은 정말로 멋져서,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반전매력이라는 것일까."

hide maria

play sound "/bgm/button.wav"

"수업이 끝나고, 브랜드가 말을 걸어왔다."

show brandon smile with fade

b "저어, 마리아."

m "응? 아... 아아."

b "이 부분을, 자세히 적어봤는데, 어때."

b "이 스콜라 철학 말인데, 교수님께서 몇번이나 반복하시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브랜드가 스콜라 철학 - 이라고 말했다. 우와."

"브랜든 의외로, 이해가 빠르구나....."

m "고마워, 나는 사실 제대로 수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브랜든이 대신 필기해 준 덕분에 걱정 없겠는걸."

b "...."

m "수업이 지루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브랜든 의외로 이런 취향?"

show brandon smile_blush with fade

"브랜든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나를 보며 웃었다."

"정말, 저 미소를 보면 나도 따라서 웃게 되고 만다."

scene bg univ

with dissolve

hide brandon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m "오늘 같이 있어서 즐거웠어. 다음에는 나도 브랜든을 만나러 갈 테니까."

m "매일 브랜든만 찾아와서야, 내가 미안하잖아."

m "회사라던가... 브랜든이 편한 곳에서 만나자!"

show brandon uh at left

b "....."

"브랜든은 복잡한 얼굴을 하더니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매일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긴 하다."

jump interlude3

#수업을 같이 듣지 않는다

label no_lec :

hide brandon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m "브랜든, 간만이네. 그간 뭐하고 지냈어?"

b "회사에서... 여러 일을 했어."

m "그래? 무슨 일?"

b "....."

m "정말. 과묵하다니깐."

show brandon smile at left

"살짝 타박했는데도 브랜든은 그저 미소지을 뿐이었다."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b "...회사에서, 상사 분도 같은 말을 하셨었어."

b "과묵하니까, 대답하지 않는 건가. 하고"

b "마리아."

"그러고보니 브랜든,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는 걸까?"

"과묵하니까, 서비스 직이라거나 영업...은 아니겠지?"

"해리와 함께 일한다는데, 해리는 확실히 프론트맨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m "응?"

show brandon uh at left

b "과묵한 건, 안 좋을까."

m "뭐야, 정말 — 아까 말했잖아. 브랜든은 지금의 브랜든이니까 좋아."

b "....."

"브랜든은 머뭇대더니 몇 가지 일상 얘기를 했다."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 다음 강의 시간이 다가왔다."

show brandon oh at left

m "오늘 같이 얘기해서 즐거웠어. 다음에는 나도 브랜든을 만나러 갈 테니까."

b "....."

"브랜든은 복잡한 얼굴을 하더니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매일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긴 하다."

jump interlude3

#놀이공원 데이트

label interlude3 :

stop music fadeout 1.0

hide maria

hide brandon

scene bg univ2 with dissolve

play sound "/bgm/button.wav"

"봄이 슬슬 막바지에 접어들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한다."

"어느새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대학을 다닌 지 벌써 3개월이나 되어간다."
"그동안 브랜든은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 내가 했던 말을 신경쓰고 있는거겠지."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수업을 들어가서 과제에 대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들었다."
"과제로 인물들의 피사체를 찍어오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m "브랜든보고 같이 가자고 해볼까?"

"이 참에 브랜든과 바깥에서 약속을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 수업이 끝나고 바로 브랜든에게 전화를 걸었다."

hide maria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m "브랜든!"

b "마..리아?"

m "응 나야. 이 시간에 통화 괜찮아?"

b "응, 혹시 무슨 일이라도..."

m "아니, 별 건 아니고... 그, 학교 과제로 사람들 사진을 찍어와야 하는데,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면 같이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래?"

b "놀이공원?"

m "그래. 브랜든, 놀이공원 가본 적 없지?"

b "응, 아아... 그렇지."

show brandon smile at left

m "이 참에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자, 내가 표를 준비할 테니까 —"

b "좋아. 놀이공원, 이라..."

m "그럼 이번 주말에 12시에 Park 59에서 보자, 그럼!"

"저질러버렸다."

"놀이공원이라니,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렇지만, 이런 바보같은 핑계로라도 브랜든과 한번 밖에서 같이 놀고 싶었다."

"브랜든과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해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시내에서 그럴듯한 데이트 약속을 잡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hide maria

hide brandon

play music "/bgm/Floaters.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scene bg room2 with dissolve

"기대한 만큼 시간은 빨리 흘러, 어느새 당일이 되었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left

m "무슨 옷을 입지...? 너무 챙겨입어도 신경쓴 것 같아서 조금 그런가."

"평소와 비슷하게 옷을 꺼내입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를 지나 버스를 타고 놀이공원을 향했다."

scene bg apark

with fade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easeinrigh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left

play sound "/bgm/button.wav"

b "....."

m "브랜드!"

b "...!"

b "마리아."

"먼저 와서 기다렸던 걸까, 브랜드는 역 주변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show maria smile at right

m "언제부터 와서 기다린 거야, 많이 기다리진 않았어?"

b "응, 아아... 얼마 전에 와 있었을 뿐이야."

"그런 것 치곤 약간 땀이 맺혀 있는 것 같은데, 분명 브랜드이라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m "더워 보이는데,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들어가자."

"브랜드와 함께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주문했다."

m "브랜드, 뭘 마실래?"

b "마리아가 골라주는 거라면 아무거나도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브랜드는 신메뉴로 나온 엄청 귀여워보이는 솜사탕이 올라간 음료 배너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저런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걸까. 정말 알수록 의외인 남자이다."

m "그럼, 아이스 레모네이드 한잔하고 코튼캔디 피자오드링크 하나요."

show brandon oh at left

b "!!"

show brandon smile at left

"음료를 받아든 브랜든은 즐거워보인다."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m "브랜든, 놀이기구라던가 타 본 적 있어?"

b "놀이기구라..."

m "하긴, 놀이공원을 와 본 적이 없잖아. 우리들."

b "아아."

m "그리고보니, 여기로 이사와서 공원같은곳은 가본 적 있는 거야?"

b "경마장은, 몇 번."

show maria default at right

"의외다."

"브랜든이 경마장? 경마라도 하러 갔던 것일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에 당황했다."

m "브랜든, 경마도 하는 거야?"

b "....?"

m "경마장이라니, 전혀 생각도 못 했어. 브랜든이라면 전혀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

m "아, 물론 나무라는 건 아니야... 그냥, 의외라서."

b "회사 분들을 따라서 몇 번..."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b "마리아, 경마장은... 나와 안 어울려?"

"진지하게 물어오는 브랜든이 귀여워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show maria smile at right

m "후...후훗. 아니야, 아니야. 브랜든, 일일이 그런 말에 신경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b "...."

show brandon oh at left

b "마리아의 말이니까."

m "앗."

show brandon oh_blush at left

"브랜든은 정말 과묵한 남자다."

"과묵한 남자지만, 항상 진심을 즉각으로 전해와서 가끔씩은 정말 나라도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오늘처럼,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게 되면서, 브랜든이 나를 정말 소중히 대해준다는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기쁘다."

"정말로 기쁘다. 무엇보다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m "그, 그럼 브랜든, 있지. 뭐부터 타러 갈까?"

"이럴때는 우선 말 돌리기다."

"나는..."

label aparkmenu :

define aparkpoint = 0

menu: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자고 한다.":

call roller from _call_roller

if aparkpoint < 3 :

jump aparkmenu

else :

jump apark2

"범퍼카를 타러 가자고 한다." :

scene bg bumper with fade

call bumper from _call_bumper

if aparkpoint < 3 :

jump aparkmenu

else :

jump apark2

"관람차를 타러 가자고 한다." :

scene bg wheel with fade

call wheel from _call_wheel

if aparkpoint < 3 :

jump aparkmenu

else :

jump apark2

label roller :

scene bg roller with fade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easeinrigh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left

"브랜든에게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자고 했다."

"놀이공원이라면 롤러코스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브랜든... 도 나도. 이거 정말로 탈 수 있는걸까...?"

"롤러코스터의 줄은 꽤 길어서, 우리는 둘이서 서서 기다려야 했다."

b "..."

m "브랜든, 롤러코스터 타는 것 괜찮겠어?"

show brandon uh at left

b "...?"

m "무섭다거나 하지 않을까?"

b "....."

m "아니, 아니야...."

"브랜든이 롤러코스터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그건 그것대로 귀여울지도 모르겠다."

"롤러코스터에 올라왔고, 안전바가 내려간 후 브랜든과 롤러코스터를 탔다."

"꽤 빠른 출발속도에 즐거워서 와아! 하며 옆을 봤는데..."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with squares

b ".....!!!"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hpunch

"브랜든, 소리내지 않으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

"하강할 때에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모른 척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브랜든 의외로 이런 것 무서워 하는구나...."

"다음에는 다른 탈것을 타자고 권해 보자."

\$ aparkpoint += 1

return

label bumper :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easeinrigh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left

"브랜든에게 범퍼카를 타러 가자고 했다."

"둘이서 재밌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라면 역시 범퍼카가 아닐까?"

"범퍼카에 올라앉아, 브랜든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m "브랜든이라도 봐주지 않을 거야!"

b "...나도, 열심히 할 거야."

"브랜든, 이런 말에도 일일이 진지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

"브랜든과 출발 사인이 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고 속도를 높였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고, 트랙을 돌았다."

m "브랜든! 에잇!"

b "!!!!"

show brandon uh at left with vpunch

"캉! 하고 부딪히고 뒤로 튕겨나가자 브랜든은 깜짝 놀라다 안절부절 못 한 채로 내 쪽을 바라봤다."

b "마, 마리아...."

m "정말, 다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구."

"브랜든은 정말로 사려깊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진심으로 걱정하곤 한다."

m "브랜든,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까 그러더니. 좀 더 밟아봐도 괜찮아."

show brandon smile at left

b "....!"

"열심히 고개를 끄덕거린 브랜든은 돌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vpunch

"캉!"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with hpunch

"와앙!!!!!"

show brandon uh at left with vpunch

"쿵!!!!!"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with hpunch

"방금 브랜든하고 부딪힌 저 사람... 튕겨 나가다 못해 세 바퀴 돈 것 같은데."

"브랜든... 운전 잘 하는건가?"

"아니... 이건 운전이라기 보단..."

b "....!!!"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hpunch

"캉!"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with vpunch

"와앙!!!!!"

"브랜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브랜든과 부딪힌 사람들은 다 몇 바퀴 씩 돈 채로 다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는 브랜든과 좀 더 정적인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것이 좋겠다."

\$ aparkpoint += 1

return

label wheel :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easeinrigh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left

"놀이공원에 왔는데 관람차가 빠지면 서운하지 않을까?"

"날씨가 좋아서, 관람차 앞에는 연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서 있는 우리도, 남들 눈에는 연인으로 비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브랜든 쪽을 쳐다봤다."

show maria default_blush at right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zoominout

b "....."

b "....?"

show brandon oh at left

b "마리아?"

"정말, 자기는 정말 매일 뻘뻘 쳐다보거나, 기다리거나 하면서 내가 조금만 뻘뻘 쳐다봐도
안절부절하는 게 귀엽다."

m "아냐, 아무 것도.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b "무슨...?"

"우리도 연인사이로 보일까? 라는 생각."

"이라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show maria eyeclosed_blushed at right

m "그냥, 브랜든. 고소공포증같은게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

b "...."

b "아니야...."

"브랜든은 진지하게 고소공포증이 없다는 걸 내게 설명하려고 들고 있다."

"참 솔직하고 아이같은 남자다."

"관람차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창문에 손을 대고 밖을 내다봤다."

"햇볕 때문에 창은 따뜻하고, 온기가 전해져온다."

show brandon smile at left

"브랜든은 신기한듯, 밖을 내다보며 미소짓고 있다."

show maria smile_blush at right

"딱히, 다른 대화가 없어도, 우리 사이가 연인으로 설사 발전하지 않더라도..."

"오늘같은 날이 매일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브랜든과 함께, 따뜻한 창에 손을 대고,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관람차에서 내린 후, 나는 브랜든과 다음에 무엇을 할 지 생각했다."

\$ aparkpoint += 1

return

label apark2 :

scene bg apark2 with fade

stop music fadeout 1.0

m "아, 재밌었다! 이제 좀 돌아다녀 볼까?"

b "아아."

"브랜든과 즐겁게 놀이기구들을 탄 후, 놀이공원을 둘러보며 조금 걷고 있었다."

show harry default with easeinright

play music "/bgm/End_of_Summer.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h "이거,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브랜든! 마리아!"

b "...! 해리!"

"누구...무슨? 해리 맥도웰! 해리 맥도웰을 마주쳤다."

show brandon smile at left

h "마리아! 이거, 정말 오랫동안이야. 마리아는 브랜든과 데이트?"

b "...."

m "...."

b "응."

"ㄷ..뭣?!"

h "브랜든! 내가 눈치없이 끼어 든 건가, 아 — 정말. 그렇지만 마리아도 오래간만에 보고, 이런 장소에서 널 만나다니 생각도 못했지 뭐야? 그래서 말을 걸어버린거야, 무심코. 데이트를 방해할 생각은 정말 없었다니깐?"

h "마리아, 더 예뻐졌는데? 브랜든에게 들었어, 이 도시로 이사왔다면서?"

"해리 맥도웰은 브랜든의 친구로, 그렇게까지 친한 상대는 아니었다."

"밝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왜인지 좀 꺼려지는 감이 있기도 했고... 브랜든과 왜 친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 저런 면을 갖고 있는 남자라서, 나와는 아무래도 친해지기 어려운 타입이다."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easeinrigh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left

show harry smile with easeintop

m "무슨... 해리. 브랜든과 같이 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h "응, 그래. 기업에서 같이 일하고 있지만, 부서가 달라서 말이야... 나도 브랜든을 자주 볼 수 없다니까? 그런데 주말에 이런 놀이공원에서 브랜든을 만날 줄은 몰랐어."

b "해리는, 무슨 일로 여기에?"

h "아— 여자한테 바람을 맞아 버렸어. 여기서 같이 만나서 놀다가, 잠깐 사이 그만."

b "....."

h "역시! 브랜든한테 안 되나. 그래. 사실, 다른 여자한테 번호를 묻고 있다가 걸렸다니까. 자, 봐봐 여기. 오른뺨에 손 자국. 한 대 맞았지 뭐야, 하하!"

b ".....!!"

"브랜든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해리의 뺨에 손을 대고 상처를 보고 있다."

"정말...저런 이유라면 한 대가 아니라 두 세 대 정도는 더 올려볼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무 말 없이 둘을 언짢은 듯 쳐다보는 내게 해리가 제안을 해왔다."

h "간만인데, 같이 식사라도 하면 어때?"

"나는...."

menu :

"승낙한다. 거절할 이유가 없지." :

"해리와는 간만이고, 브랜든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m "좋아. 간만에 셋이서 모였으니까, 기념으로."

b "...."

h "브랜든도 좋아하는데, 여기 맛있는 식당을 알거든, 같이 가자구!"

jump aparkres

"거절한다. 승낙할 이유가 없지." :

"좀 더 브랜든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거절했다."

m "음... 오늘은, 저기..."

show brandon oh at left

b "....."

m "음..."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fade

b "....."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dissolve

b "....."

"브랜든, 노골적으로 그렇게 비맞은 강아지같은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긴, 브랜든과 해리는 전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브랜든과 해리 서로 매우 의지하면서 자랐기도 했고."

h "내가 데이트를 방해한건가? 아— 역시, 빠져줘야 하나."

b ".....해리."

m "음,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라는 말이었어. 어디 괜찮은 곳 알아?"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fade

b "....!!"

h "브랜든도 좋아하는데, 여기 맛있는 식당을 알거든, 같이 가자구!"

jump aparkres

label aparkres:

scene bg apark with dissolve

play sound "/bgm/button.wav"

"셋이서 놀이공원 근처 역으로 다시 걸어나왔다."

"그동안 해리는 끝없이 떠들면서, 그간 지내온 얘기를 전해줬다."

"브랜든과 해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 그 회사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펍 큰 대기업이었다는 점."

"브랜든과 해리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해리는 영업직을 하고 있다는 것."

stop music fadeout 3.0

scene bg aparkres with fade

play music

"/bgm/That_Kid_in_Fourth_Grade_Who_Really_Liked_the_Denver_Broncos.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play sound "/bgm/Coffee_Shop.mp3"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easeinrigh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left

show harry default with easeintop

h "그래서, 여기야. 어때? 꽤 근사하지?"

"해리가 데려온 식당은 딱 세련된 다이닝 키친이었다."

"전에 살던 마을에서는 들러 본 적도 없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

"해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메뉴를 설명하고, 와인까지 주문했다."

play sound "/bgm/Knife_On_Plate.mp3"

b "해리, 이런 곳에도 자주 오는 건가."

m "그러게, 정말. 깜짝 놀랐잖아! 회사를 다니더니 둘 다, 대단해졌어."

b "그런...아니야."

h "브랜든이 너무 검소한거야, 정말. 여자를 데리고 데이트를 나왔으면 이런 곳 정도는 미리 알아보고 와주지 않으면, 레이디한테 실례라고?"

m "그런 레이디를 두고 다른 레이디의 번호를 따는 것도 실례 아닐까."

show brandon smile at left

b "푸훗."

h "? 아? 브랜든! 지금 웃은 거야? 소리내서? 와— 마리아, 너랑 같이 있으면 브랜든은 이렇게 웃기도 하는 건가. 정말, 여자친구는 다르다 이거구나, 브랜든."

show maria default_blush at right

show brandon default_blush at left

m "응? 아, 아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해리."

h "아무래도 과묵한 친구니까 말야... 마리아가 걱정이었는데, 이래서야~ 원 정말, 내가 다 속상하다니까 브랜든, 안 그래?"

b "....아아."

h "정말, 아아~ 가 아니잖아 인마! 하하하하!"

"브랜든이 과묵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해리와 있을 때도 비슷할 줄은 정말로 몰랐다."

"나에게 브랜든이 특별히 대해주고 있는 건 알았지만, 브랜든이 남들에게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에."

"생각해보면 오늘 범퍼카를 탈 때에도... 나와 살짝 부딪힌것만으로도 안절부절하더니, 다른 사람들에게겐... 우와."

"브랜든, 브랜든 히트라는 남자는 나를..."

h "그래서! 오늘 간만에 회포를 풀면서 와인도 한 잔 곁들이고 말야. 마을 삼총사의 재결합인데 이거! 축하하자구!"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b "응, 해리... 마리아."

m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어서... 기뻐."

show brandon smile at left

b "정말... 응."

show harry smile

h "뭐야, 또 그런 식이냐, 브랜든! 하하하하!"

"해리는 브랜든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로 호쾌하게 웃었다."

"브랜든은 따라서 미소지으면서 나를 바라봤다."

"나도, 해리와 브랜든과 함께 웃으면서 나온 식사를 먹고, 와인을 곁들였다."

"오늘 하루, 셋이서 만나서 함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브랜든이라니."

"나는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 같다."

#학식을 같이 먹는 이벤트

label interlude4 :

hide maria

hide brandon

stop music fadeout 4.0

scene bg univ2

play sound "/bgm/button.wav"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

"어느새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찾아왔다."

"그동안, 브랜든과는 가끔 만나면서,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그리 자주 보지는 못했다."

"브랜든은 아무래도 회사 일로 정말로 바쁜 모양이었다."

"나만 한 발 뒤쳐진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브랜든은 잘 지내고 있을까."

"개학을 한 후 아직 학교로 브랜든이 찾아온 적은 없다."

"나도 바빴지만서도, 브랜든에게 생각이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연락하고 나서 오라고 한 걸 아직까지 신경쓰고 있는 걸까?"

"브랜든은 그런 남자였다."

"내 말 한 마디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남자."

show maria default_blush

m "....."

"브랜든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끝도 없다."

"나는 브랜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핸드폰 벨이 울렸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right

m "여보세요?"

b "....마리아."

m "브랜든? 브랜든! 어떤 일이야. 먼저 전화하다니. 별일이네."

b "....아, 아니."

m "앗, 아냐. 반가워서 그런 거야. 응, 무슨 일이야?"

b "마리아, 괜찮다면 오늘... 학교로 가봐도 될까."

m "브랜든, 정말로 신경쓰고 있었구나...."

b "...?"

m "아냐, 아냐. 응, 좋지. 마침 점심시간이니, 식사라도 같이 하자. 지금 어디야?"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easeinbottom

b "....."

m "....."

b "그, 학교...."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m "브랜든, 눈 앞에 있으면서... 전화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구."

"정말, 미리 연락할 생각조차 못하고 학교로 우선 찾아온 후에도 내 말을 기억하고서 내게 전화를 건 건가."

"어디까지 귀여울 셈일까, 이 남자는."

"브랜든은 땀을 흘리면서 핸드폰을 급하게 바지춤에 넣었다."

show maria smile at right

m "그래서? 점심은 아직이지?"

b "응."

m "으음...근데 내가 다음에 또 수업이 있어서, 어쩌지.. 멀리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b "....."

m "수업, 빠져버릴까?"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b "....."

b "....."

"우와, 브랜든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안돼. 라고 말하고 있다."

"은근히 엄격한 구석도 있는 남자다."

m "농담이니까, 표정 풀어... 식사를 하러 학교에 있는 카페테리아라거나 둘러도
괜찮다면야."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b "나는 좋아."

b "마리아가, 항상 식사하는 곳... 인가."

m "응. 꽤 맛있다구? 오늘은 특별히 내가 쏘 테니까!"

b "그, 그럴 필요는..."

play sound "/bgm/stepdirt_2.wav"

scene bg cafeteria with dissolve

play music "/bgm/The_Bluest_Star.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play sound "/bgm/Voices_On_Street_Accent.mp3"

"저번에도 놀이공원 표를 먼저 사고 기다리고 있던 브랜든이다."

"저녁식사야 해리가 접대했지만, 브랜든에게 뭔가 사주고 싶기도 했고."

"학교 식당 정도야 얼마 하는 곳도 아니니까..."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easeinlef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right

b "2 장이요."

m "응? 아 뭐야 — 브랜든. 내가 사려고 했는데."

b "....아냐."

"정말 — 오늘도 선수를 빼앗겨버렸다."

"다음에 정말 뭐라도 해주지 않으면... 생각해보니 항상 먼저 날 기다리고 먼저 내게 원갈
해주다버릇 하다보니 나도 브랜든의 저런 모습에 익숙해졌기도 하다."

m "그럼, 이렇게 먹자. 이 오므라이스하고, 볶음 우동은 어때? 이것도 맛있어! 음료수도...
브랜든, 달콤한 거 좋아하니까. 딸기 쉐이크 같은 건 어떨까~"

b "마, 마리아..."

"딸기 쉐이크를 주문하는 내게 브랜든이 뒤에서 어물쩍 말을 걸어왔다."

b "마리아도 먹고 싶은 걸로 시키는 게..."

show maria smile at right

m "정말, 브랜든! 브랜든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고, 나도 좋아하고. 브랜든도 좋아하는 메뉴잖아. 신경 쓰지 말래두, 그리고 브랜든, 이런 거 절대 혼자서는 사먹으러 오지 않을 스타일이니까."

b "아, 아아..."

"메뉴가 나오고, 나는 브랜든에게 내 우동을 잔뜩 밀어줬다."

play sound "/bgm/Knife_On_Plate.mp3"

b "?! 마, 마리아... 나는."

m "정말, 오늘이라도 많이 먹는거야. 예잇 — 자, 이만큼은 다 먹어야 하니깐!"

show brandon oh at left

"브랜든은 안절부절하면서 볶음 우동을 잔뜩 입에 넣고는 우물거리고 있다."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선 내가 밀어준 우동을 우물거리는 브랜든이 썩 귀여워서, 나는 나도 모르게 웃어버리고 말았다."

show maria smile_blush at right

m "푸..푸핫, 브랜든. 천천히 먹어도 괜찮아. 자, 많으니깐... 부족하면 더 시키면 된다구? 거봐 — 이 메뉴 맛있지? 브랜든도 좋아할거라고 생각했어."

show brandon smile at left

b "응. 정말.... 맛있어."

"브랜든은 자기 뒤편 오므라이스를 먹으려고 케첩을 바라봤다."

"...."

"브랜든이 케첩으로 웃는 얼굴을 계란 위에 그리기 시작한다...."

"우와, 정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상한 곳에서 귀여운 남자다."

m "브랜든. 그거, 다시 잘라서 파 먹어야 한다구...?"

show brandon uh at left with hpunch

b "...!!!"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브랜든은 당황한 눈치로 케첩의 웃는 얼굴을 피해서 밥을 먹고 있다."

"브랜든, 확실히 귀엽다."

"어린이 같은 면이 있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책임감이라거나, 굉장히 강한 점도 멋지지만."

"참 여러 모로 매력적인 남자다."

show maria smile at right

m "브랜든, 다 먹었어?"

b "응..."

m "뭐야, 웃는 얼굴을 그린 건 브랜든이면서, 그걸 다 먹었다고 시무룩해져서 어찌잔 거야
— 정말! 하하하하, 브랜든, 정말로 귀엽구나."

"으, 으앗. 귀엽다 귀엽다 생각했지만 말로 내뱉어버렸다."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vpunch

b "....."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with hpunch

b "....."

"브랜든은 뒤돌아서 나가고 있다..."

"뭐지, 귀엽다고 불러서 혹시 화가 난 건가"

show brandon default_blush at left with hpunch

b "....."

"브랜든은 귀까지 새빨개져 있다."

"정말 서투른 남자라니까."

"옆에서 괜히 웃으면서 함께 식당을 걸어나갔다."

#브랜든과 도서관에 가는 이벤트

label interlude5:

hide maria

hide brandon

stop music fadeout 2.0

show bg library with fade

play sound "/bgm/button.wav"

"신년이 찾아왔다."

"방학간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새 2학년이 된 것이다."

"봄내음이 물씬 풍겨오지만, 꽃놀이를 하러 갈 시간은 없다."

"칼드웰 씨와 함께 이 동네에서 살게 되면서,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시험기간, 밤 늦은 시간이지만 도서관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다."

"나도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날이 잦아졌다."

"확실히 2학년은 1학년 때 보다는 바빠지기 마련인 것이다."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m "경제도 경제이지만... 중급 회계부터는 정말 큰일났는데."

"법부터 재무, 회계까지.. 원지 모르고 들어온 인문학대지만, 벌써부터 정말 벅차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칼드웰 씨는, 내가 대학을 다니는 것을 원하셨고, 대학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나는 그래도 이게 더 쉽지 않을까, 하고 지레짐작으로 이 과를 선택했다."

m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

"브랜드와 들었던 철학 강의가 생각나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다."

m "시험공부 때문에 친구들은 커녕 브랜드도 만날 시간이 없는 걸..."

show bg room2 with fade

"어둑어둑해지는 길을 따라 무거운 책가방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마케팅 사례 연구에 대해 조사하다가, 문득 브랜드와 해리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show maria default

m "정말, 재주도 좋아. 둘 다... 어떻게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에 들어간 거지?"

m "나도 졸업 후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m "아, 마케팅과 관련한 내용은 브랜드에게 물어볼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핑계로, 나는 브랜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b "....마리아?"

m "브랜드, 안녕! 미안... 밤에 전화해버려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b "마리아가? 나에게...? 응."

m "아— 요새 시험기간이라서 말이야..."

"분명 브랜드에게 몇 가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인데, 간만에 통화해서인지 너무도 반가웠다."

"결국 한 30분정도 미주알고주알 브랜드와 수다를 떨고 말았다."

"수다를 떨었다고 해도, 거의 내가 요새 학교생활에 대해 말하고 브랜드는 호응해줬을 뿐이지만."

show brandon uh at left

b "마리아, 그래서 요새 매일 도서관에 가고 있는 건가..."

m "응,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지겨워 — 나도 브랜든이나 해리처럼 괜찮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b "마리아, 그... 괜찮은 거야?"

m "응? 무슨 소리야. 브랜든! 나도 졸업하면 그럴듯한 회사에 들어가서 —"

show brandon oh at left

b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밤 늦게 매일 혼자서... 집에."

m "그런 건 괜찮아, 브랜든. 이 도시는 전에 살던 곳이 아닌걸~ 위험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b "....."

show brandon uh at left

b "마리아, 괜찮다면... 내일, 학교로 가봐도 될까."

"브랜든은 심각하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play sound "/bgm/button.wav"

menu :

"승낙한다." :

"간만에 브랜든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승낙했다."

m "응, 나야 고맙지. 그런데..."

b "응?"

"거절한다." :

"브랜든이 와도 같이 있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거절했다."

m "고맙지만 브랜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show maria sad at right

m "내일 와줘도, 같이 오래 있지 못해. 나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예정이라..."

b "...."

b "도서관에서 같이 있을 수 있을까."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응? 브랜든도? 그렇지만...브랜든, 심심하지 않을까?"

"의외다."

"브랜든은 도서관에서 같이 있다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줄 모양이다."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b "괜찮아."

b "내가... 그러고 싶어."

m "브랜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hide brandon

"결국 브랜든과 내일 학교 도서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 버렸다."

show bg univ with fade

"학교를 출발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들뜬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서성이다가 걸어오는 브랜든을 마주쳤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easeinleft

m "브랜든!"

b "마리아."

show bg library with fade

play music "/bgm/Airport_Lounge_Disco_Ultralounge.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도서관에서 나는 공부할 책을 빌리고, 서성이는 브랜든에게도 책을 몇 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줬다."

"시험기간의 도서관은 상당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끝 쪽 칸막이 자리로 우리는 이동해야 했다."

m "여기에 앉자, 브랜든."

b "아, 응. 사람이.... 굉장히 많네."

m "응, 시험기간이라 아주 정신이 없어. 그래도 같이 앉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b "....."

"브랜든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m "자, 그럼 나도 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

b "응. 마리아."

"몇시간동안 집중하며 요점정리를 하고, 전공서를 뒤적였을까, 옆에 있던 브랜든을 쳐다봤다."

"브랜든은 책을 읽으면서 살짝 찡그린 얼굴로 집중하고 있다."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브랜든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브랜든도 펍 멋지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다면 브랜든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면 더욱 더 즐거웠을 것이다."

"브랜든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즐겁지만, 특별히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더 즐거웠다."

"살짝 찌푸린 얼굴로 집중하는 브랜든이 멋져보이기 때문이다."

m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브랜든과 해리와 같은 회사를 지망하는게 좋겠지."

"브랜든에게 그런 메모를 적은 노트를 밀어주었다."

m "브랜든, 지루해 :("

show brandon smile at left

"브랜든은 쿡쿡 웃더니 무어라 적어 노트를 돌려주었다."

b "조금만 더 힘내.<•m•>"

"브랜든의 글씨체는 삐뚤삐뚤했지만, 낙서와 어우러져 그 편이 더 귀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로 장난치면서, 공부하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11시에 가까워져 가, 나는 브랜든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고 나섰다."

play sound "/bgm/Voices_On_Street_Accent.mp3"

show bg riverside1 with fade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b "마리아,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거야?"

m "항상... 은 아냐. 오늘은 왠지 집중이 더 잘 된 것 같은데?"

m "원래는 항상 7~8시정도면 집에 돌아가게 되거든. 브랜든이랑 같이 공부해서인가?"

show brandon default_blush at left

b "...."

"도란도란 떠들며 우리는 학교를 빠져나와 우리 집 쪽으로 걸기 시작했다."

"원래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했지만,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브랜든과 좀 더 이야기하며 걷고 싶었다."

play sound "/bgm/Forest_Wind_Summer.mp3"

"함께 올라다본 초여름의 밤하늘은 아름다웠다."

"풀벌레가 울고, 낮의 열기가 식은 아스팔트 위에 선 우리를 향해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show brandon smile at left

show maria smile at right

b "마리아, 오늘은... 마리아 덕분에 즐거웠어."

m "응? 무슨... 오늘 오히려 브랜든이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구. 나는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브랜든은 나를 기다려준 것 뿐이잖아."

b "아냐. 마리아 덕분에..그. 오늘 처음, 책을 읽어봤어. 도서관이란 곳도... 신기했어."

b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은 해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b "고마워."

"브랜든은 아마 학교를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간 해리 패거리와 지낼 때도 따로 공부를 할 생각같은건 하지 못했겠지."

"회사를 다니면서도 원래 나이인 20대답게 지낼 기회가 없었던 게 분명하다."

"고작 대학교를 하루 구경한 것만으로 저렇게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 브랜든을 보니 마음이 찡했다."

m "브랜든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들러도 돼."

m "브랜든이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내가 빌려줄게."

b "....."

m "브랜든은 내 제일 소중한 친구인걸. 항상 눈치보지 않고 찾아와도 돼."

b "....응."

"그 후, 우리는 실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강변을 걸어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브랜든은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가끔씩 내 쪽을 쳐다보며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하루였다."

#브랜든방학데이트1

label interlude6 :

hide maria

hide brandon

stop music fadeout 3.0

show bg riverside2 with fade

play sound "/bgm/button.wav"

"어느새 햇볕의 따뜻함이 뜨거움으로 바뀌어, 여름 방학이 찾아왔다."

"여름방학이 되었지만, 학교를 다닐 때 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다."

"칼드웰 씨는 내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를 바라셔서, 외국어라거나 기타 교양을 익히는 데 정신이 없다."

"최근에는 칼드웰 씨가 추천해 주신 덕에, 사교 댄스를 배우러 다니고 있다."

"갈아입을 옷을 챙긴 채로, 오늘도 집 밖으로 나섰다."

"강습을 가는 길에는, 주말이지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show maria eyeclosed with easeinbottom

m "다들, 바쁘구나."

show maria default

"전에 살던 마을에서는, 주말이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는 했다."

"학원이라거나 하는 것도 없어서,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고, 10대였던 우리들은 보통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 안에서 보내곤 했다."

"그러나 도시의 생활은 많이 달라서, 주말에도 평일에도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것이었다."

"문화와 교양이 가득한 곳이어서, 하나씩 배우며 적응해 가기에 정신이 없었다."

m "촌뜨기 취급 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칼드웰 씨 덕분에 많이 적응할 수 있었어."

"칼드웰 씨는 내게 항상 배워보고 싶은 일이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신다."

"영화, 미술 등 다양한 예술에 대해서, 교양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신 무엇보다 감사한 분이시다."

"전에는 내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는, 아니 사실은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다."

"칼드웰 씨 덕에 교양 시민으로서 기품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브랜든이나 친구들에게 변변찮은 인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도 빨리 떠나왔던 것이다."

"물론, 이 도시에서 브랜든을 마주칠 거라고는, 또 브랜든이 멋진 대기업을 다니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로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show bg ice with fade

"사교 댄스 학원을 들렀다 오는 중, 날이 더워서 잠시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렀다."

"아무래도, 춤을 추고 난 후니 땀이 나서 더욱 더운 것 같았다."

m "레몬 셔벗 하나요. 얼마죠?"

"팁을 꺼내는 도중 내 아이스크림 값을 내미는 남자가 있었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show harry default with easeinright

play music "/bgm/End_of_Summer.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h "이 4달러는 제가 결제하죠, 아가씨."

h "여, 마리아!"

m "해리!"

h "여긴 어떤 일이야, 주말에도 바빠 보이는걸? 데이트?"

m "무슨... 아냐. 해리야말로 어떤 일이야? 주말에도 그렇게 차려입고... 해리야말로 데이트?"

show harry smile at left with moveinleft

h "아아. 잠깐 회사일로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지... 브랜든도 부를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마리아를 만나 버렸지 뭐야."

m "그럼 더 잘 된 것 같은데? 브랜든도 같이 만나자!"

h "그러게... 그간 연락이라도 하지, 어떻게 지냈는 지 궁금했다구. 브랜든과도 잘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 하하하하! 전부터 그렇게 각별했던 사이니까 말야. 이사와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었어."

"해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앉아서 브랜든을 기다렸다."

"주말에도 둘은 바쁘게 사는 것 같았다. 회사 일로 많이 바쁜 모양이다."

m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야?"

show harry default at left

h "아아, 일이라기 보단... 브랜든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려고 했지."

m "회사 분들이야?"

h "응. 괜찮은 녀석들이야... 분명 브랜든도 좋아할거라고 생각해."

"조금 기다리자, 브랜든이 찾아왔다."

show brandon default with easeinleft

b "해리.... 그리고... 마리아?"

h "브랜든! 하하, 그제... 음. 마리아를 만나버려서, 같이 기다리게 된 거야. 괜찮지?"

show maria smile at right

m "브랜든, 안녕!"

b "...."

b "응."

show brandon eyeclosed

"브랜든은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더니 의자에 앉았다."

b "마리아는 어떤 일이야?"

m "아, 학원을 다녀오는 길에 해리를 만나버려서. 브랜든과 만날 계획이었다길래 나도 끼워달라고 했지."

b "....그렇구나."

"브랜든은 해리 쪽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stop music fadeout 2.0

show brandon uh

b "해리, 오늘은, 괜찮다면... 그냥 셋이 보내는 게 어때."

show harry default at left

h "응? 아아... 뭐, 브랜든이 그렇다면야. 나는 상관 없지만. 마리아, 이 녀석 말야 — 회사 녀석들에게 마리아를 소개하기가 싫은 모양이야 — 정말. 의외인 곳에서 깐깐한 남자라니깐 —"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m "브랜든, 정말 괜찮아? 브랜든도 해리도 오늘 원래 할 일이 있었다면 내가 —"

b "....아니야. 오늘은.... 셋이 모였으니까."

h "그럼, 우리가 무슨 사인데? 회사 일이야 주말이니까 잠시 미뤄놓아도 괜찮잖아. 내가 녀석들한테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구, 하하하하!"

hide harry

hide maria

hide brandon

"그렇게 말한 해리는 몇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더니, 자리를 옮겼다."

"회사분들과 만날 약속이 있던 차에 내가 끼어든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괜찮다면 그냥 다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자리를 비켜줬으면 될 일이었을 텐데."

"브랜든은 이상한 곳에서 깐깐한 점이 있다. 특히 회사와 관련된 일이면...."

"공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걸까?"

"웬지, 신경이 쓰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는 해리를 따라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scene bg aparkres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show harry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show brandon default with dissolve

play music

"/bgm/That_Kid_in_Fourth_Grade_Who_Really_Liked_the_Denver_Broncos.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play sound "/bgm/Coffee_Shop.mp3"

h "여기, 디너 세트와....샤토 라피트 로실드 하나요."

b "...?"

"원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싼 와인이라는 것은 알겠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죽마고우지만, 해리와 브랜든의 분위기는 썩 다르다."

"해리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이런 고급스러운 식당을 자주 다니는 듯 하다."

"그렇지만 브랜든은, 전과 다른 옷을 입고, 나와 만날 때 외에는 그럴듯한 곳에도 잘 가지 않는 듯 하다."

"우리는 서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찌도 이렇게 셋이 다를까."

"브랜든도, 해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있었으면 했다."

"해리가 주문한 음식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스테이크와 랍스터였다."

play sound "/bgm/Knife_On_Plate.mp3"

b "마리아, 괜찮다면...이걸."

"브랜든은 자기 몫의 스테이크를 잘라서 내게도 먹어보겠냐고 물어봤다."

"해리는 히죽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짐짓 장난스럽게 말했다."

show harry smile at left

h "브랜든 말야, 여기로 이사와서 다시 마리아를 만나고, 꽤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
전에는 좀 더 과묵한 느낌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는데."

show brandon default_blush

b ".....!!!"

m "뭐야, 해리. 브랜든을 놀리는 건 그만둬 — 정말."

b "....."

h "하하하! 정말 귀여운 커플이라니까— 너희들 말야, 언제 결혼하는 거야! 축의금은
뽕뽕하게 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구. 하하하하!"

show maria default_blush at right

"해리의 장난기어린 말에, 브랜든도 나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사실, 서로 사귄다는 생각이라거나 서로가 연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연인으로 비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자 얼굴에서 웃음기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아직은... 브랜든도 나도, 서로 서투르지만,"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분명, 우리의 사이에도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브랜든방학데이트2

label interlude7 :

hide maria

hide harry

hide brandon

stop music fadeout 4.0

show bg room with fade

"어느새 개강이 눈앞에 다가와, 방학도 끝이 보였다."

"학기가 시작되면 더더욱 바빠질 것 같아, 브랜든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기로 했다."

"저번에 브랜든이 책을 볼 때 계속 인상을 찌푸리던 걸 기억해 낸 것이다."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브랜든, 가까운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m "한번 안경점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브랜든에게 안경점을 가보는 게 어떻냐고 묻기 위해 전화했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m "브랜든, 나야! 안녕. 잘 지냈어?"

b "아아, 마리아. 응."

m "저기, 괜찮으면... 오늘 같이 시내에서 만나지 않을래?"

b "오늘?"

m "응. 브랜든과 같이 가고 싶은 곳도 있고...."

b "좋아. 어디인데?"

m "가면 알려 줄게, 엄청 기대되는걸!"

hide maria

hide brandon

scene bg road1 with fade

"브랜든과 저녁즈음에 약속을 잡고, 시내에서 만났다."

"브랜든은 어디를 가려는 걸까 궁금해하고 있다."

"안경을 쓴 브랜든이라니, 기대된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moveinright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moveinleft

m "자, 여기야."

b "....?"

show brandon oh at left

b "안경점? 마리아, 시력이 나빠진 거야?"

m "하하하! 아냐, 이리 와봐. 브랜든."

scene bg optitian with fade

"브랜든을 데리고 안경점으로 들어가 시력 검사를 부탁했다."

"브랜든은 의자에 앉아서 신기한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moveinright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moveinleft

m "자, 저번부터 책을 볼 때 잘 안보이지 않았어? 브랜든, 근시가 있는 게 분명해."

b "근시...?"

m "응. 선생님, 시력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 때, 브랜든은 열심히 책을 넘기면서 살짝 눈을 찌푸리고 있었다."

"혹시,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브랜든은 아주 약간의 근시가 있었다."

m "으음... 안경을 매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쯤 있으면 편하겠는걸."

b "그런...."

m "브랜든은 어떤 안경이 어울릴까? 이걸 언제?"

"내가 집어든 무테 금속 안경은 중후한 멋을 가지고 있었다."

show brandon glassess at left

"안경을 받아 쓴 브랜든은 꽤나 학생같은 느낌이 났다."

"옷은 평소와 같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안경을 쓴 것만으로 분위기가 꺾 변하는 것이다."

"브랜든은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다."

"그것 때문에 다들 몰라보지만, 브랜든은 사실 꽤 흰칠한 미남이었다."

"키도 크고, 체격도 다부지고, 인상은 아주 선하지만 남자다운 매력을 가졌다."

"안경을 받아 쓴 브랜든은 훨씬 지적으로 보여, 그의 평소 모습을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잠시동안 브랜든 히트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m "와, 와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show brandon uh_glassess at left

b "고마워, 마리아...."

m "브랜든, 가끔은 안경을 쓰고 다니는것도 멋진 것 같은데?"

show brandon gb at left

b "...!!!"

m "훨씬 멋진걸? 안경 쓴 브랜든 말야. 지적이여 보여."

m "잘생겼어."

show brandon oh_gb at left

"브랜든은 안경을 한 손으로 올리며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완전히 요새 유행하는 말로, 초식남이다."

"누가 그를 싸움을 하던 남자라고 생각할까?"

show brandon smile_gb at left

b "그런데, 마리아. 나..... 안경은. 괜찮아."

m "그래? 다른 것도 써 봐도 괜찮은데."

b "나와는 잘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m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show brandon uh_glassess at left

b "아냐.... 불편하기도 하고, 아직은."

b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m "음... 그래도. 신경쓰이는걸, 브랜든... 눈이 더 나빠지거나 하면 큰일이잖아."

"안경을 받아쓰고, 안절부절하는 브랜든을 보는 건 재미있었지만, 브랜든은 아무래도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일하는데 안경이 방해가 되는걸까?"

"아니면, 브랜든은 원래 운동을 자주 했으니.. 불편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걸 지도 모른다."

"아직 그렇게까지 시력이 나쁜 것도 아니니 괜찮을거라고 생각한다."

scene bg road1 with fade

"잠깐 안경을 쓴 브랜든을 구경한걸로 만족하며, 우리는 안경점을 나왔다."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easeinleft

show maria smile at right with easeinright

m "브랜든, 저녁은 뭘로 먹을까?"

m "괜찮다면 해리와 함께 갔던 식당은 어때?"

show brandon smile_blush at left

b "...! 좋아."

"맛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 브랜든은 눈에 띄게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승낙했다."

scene bg aparkres with fade

play music

"/bgm/That_Kid_in_Fourth_Grade_Who_Really_Liked_the_Denver_Broncos.mp3" fadeout
1.0 fadein 1.0 loop

"식당에 도착해서, 해리가 시켰던 와인같은 건 시킬 수 없었지만, 그럴듯한 메뉴를
주문하고 둘이서 기다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가족과 연인들이 앉아있었다."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dissolve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with dissolve

m "브랜든, 해리 덕분에 이런 식당도 알게 되고. 정말... 여기에 와서 다행이야."

b "무슨... 나야말로. 요새 정말로 즐겁다니깐?"

b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

m "응."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사실, 이사를 오게 되면서....삼촌도 돌아가시고,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어."

m "그래서..브랜든이나 해리에게 연락을 못한 건 정말 미안해."

b "....."

m "나를 먼저 찾아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 했는데.... 브랜든에게는 여러모로 빚진 게
많네."

show brandon uh at left

b "아니야, 마리아."

m "사실, 대학교로 찾아온 브랜든을 보고 이게 꿈이 아닐까 생각했어."

m "나 혼자 도망쳐오듯 떠나와버려서... 미안해서 먼저 연락조차 못 했는데. 브랜든이 먼저
나를 찾아와주다니 정말 고마웠어."

show brandon oh at left

b "....."

b "그런 게 아냐, 마리아..."

show maria sad at right

m "브랜든은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또 찾아와주고. 나는 브랜든에게 해준 것도 많이
없는데...."

m "항상, 브랜든에게 빚진 느낌인걸."

show maria smile at right

m "그러니까 앞으로 브랜든한테 내가 더 잘 해야지."

m "나, 브랜든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

m "앞으로도, 잘 부탁해?"

show brandon smile at left

b "응."

"우리는 여름의 마지막,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브랜든, 그리고 해리 덕분에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욱 행복해진 기분이다."

#브랜든과 소풍을 가는 이벤트

#21세, 가을

#브랜든과 도시락을 먹는 이벤트

label interlude8 :

hide maria

hide brandon

stop music fadeout 4.0

scene bg roomright with fade

play sound "/bgm/button.wav"

"어느덧 22살이 되었다."

"내가 3학년이라니..."

"학년이 바뀌자 눈코뜰새없이 바빠져, 벌써 1학기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1년동안의 행복한 기억을 돌아보았다."

show maria eyeclosed with dissolve

"브랜든에게도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브랜든에게는 항상 받기만 하는 느낌이다."

"누군가는, 브랜든을 보고 너무 과묵한 남자라서 괜찮냐고 묻기도 했다."

"분명 브랜든은 말수가 적고, 먼저 말을 걸어오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

play sound "/bgm/button.wav"

"브랜든은 항상 나를 먼저 배려해준다."

"먼저 나를 기다리고, 먼저 나를 생각하고 행동한다."

"브랜든은 항상 내게 주의를 기울인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세세한 것까지 모두 기억한다."

"브랜든은 항상 나를 지켜준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내가 아팠을 때도 그는 나를 돌봐주었다."

"그런 브랜든을 그저 과묵하고 말없는 남자라는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에게 조금 심통이 난 것도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은, 브랜든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전혀 그런 남자가 아닌데."

"브랜든 히트라는 남자가 실제로 얼마나 다정하고 따스한 사람인지를 모두가 알아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가 서투른 탓으로,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브랜든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알아줄거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정말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show maria default with blinds

play sound "/bgm/button.wav"

m "오늘은, 브랜든과 같이 점심을 먹자고 먼저 말해야겠어."

m "괜찮다면 내가 도시락을 준비해볼까?"

"오늘은 그렇다면, 특제 도시락을 준비해서 브랜든과 함께 먹는 게 좋겠다."

scene bg kitchen with fade

"브랜든을 위해서 귀여운 도시락을 싸기로 마음먹었다."

"아침일찍 일어나, 밥을 간장소스에 묻혀 동그랗게 굴리고, 그위에 검정색 어묵으로 귀를 달았다."

"얼굴 부분은 김과 계란 조각으로 장식해 귀여운 곰돌이 주먹밥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위로 계란 지단을 부쳐, 곰돌이가 이불을 덮은 듯이 올려두었다."

"브랜든을 위해 케첩을 준비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show maria smile with dissolve

m "직접 싸서 먹으라고 하면, 엄청나게 좋아하겠지. 브랜든."

scene bg univ with fade

"브랜든에게 학교에서 점심즈음에 보자고 약속하고, 즐겁게 집을 나섰다."

"오늘따라 수업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너무도 시간이 가지 않았다."

"겨우겨우 수업을 마친 후, 운동장 쪽으로 나왔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fade

m "브랜든, 도착했으려나?"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easeinleft

b "응? 마리아."

m "...."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m "이젠 소리지르면서 놀라지 않거든, 브랜든!"

b "아, 응...?"

"브랜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취미일까...."

"이제는 하도 익숙해져서 놀라지도 않게 된 나도 나지만"

show maria smile at right

m "오늘은 기대해, 정말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거든."

b "....! 응."

m "자, 따라오라구."

play sound "/bgm/stepdirt_1.wav"

scene bg univ_garden with fade

play music "/bgm/Sunflower.mp3" fadeout 1.0 fadein 4.0 loop

"브랜든과 함께 여름의 교정을 거닐었다."

"날씨가 더워서 혹시 상하지 않을까, 아이스 박스에 도시락을 넣어서 챙겨왔다."

"나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든 만큼, 브랜든이 좋아해줬으면 한다."

play sound "/bgm/stepdirt_1.wav"

scene bg grass with fade

"브랜든과 잔디밭에 앉아, 짐을 펼쳤다."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play sound "/bgm/bird.wav"

b "....?"

m "오늘의 메뉴는 바로, 짜잔 —"

b "이건...?"

m "직접 열어봐, 브랜든."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vpunch

b ".... 응... 엇, 우, 우와아아! 마리아. 직접 만든 거야? 이걸 전부?"

"브랜든은 아이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도시락을 보고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m "그럼, 당연하지. 아침부터 준비한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 한다? 나름 신경써봤는데. 어때, 귀엽지 않아?"

b "응, 마리아. 정말로... 정말 멋진 도시락이야. 나.... 나는. 나는...."

b "정말 고마워."

show brandon oh_blush at left

"브랜든은 웃으면서 도시락통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지금부터 해체해서 먹어야 할 텐데, 큰일인데."

m "브랜든, 지금부터 먹어야 하는데, 그거... 음. 곰돌이의 머리 부분부터, 그... 갈라서 먹을까?"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b ".....!!!!"

"브랜든을 놀리는 것도 재미있다."

"브랜든은 고민하다가 눈을 꼭 감고 곰돌이의 귀부터 떼서 먹기 시작했다."

show maria smile at right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푸훗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정말, 남을 해치는 걸 싫어하는 남자다. 절대 싸움꾼이라거나 어울리지 않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물론 멋지게 싸우는 브랜든은 동경한다. 강한 남자다. 항상 나를 곤경에서 구해주었다. 그렇지만... 브랜든은, 브랜든 히트는, 정말 싸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다."

"사실 해리 패거리와 어울릴 때도 조금 말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브랜든과 그들의 관계가 너무도 행복해보였기에 내가 무어라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을 뿐이다."

"뭐, 이제 둘 다 어엿한 직장을 구해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다행이다."

"사실 걱정이 된 건 사실이다. 둘이 하던 일은... 동네의 질 나쁜 패거리 같은 일이었으니."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브랜든도, 또 해리도. 그런 일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는 편이 훨씬 낫다."

"특히, 브랜든같은 사람에게는...."

show maria smile at right

m "브랜든, 맛있어?"

show brandon smile_blush at left

b "응, 마리아... 정말로. 정말 맛있어."

b "이런 도시락을 먹는 건...처음이야."

"브랜든은 그런 말을 하면서, 행복하게 웃었다."

"정말, 이렇게 웃어준다면... 나는 평생이라도 브랜든의 식사를 챙겨주고 싶다."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m "다행이야..."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날씨도, 이렇게 좋고...운동장이지만 퍽 운치있지?"

b "응."

m "그래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풍경을 둘러보면...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 힘들 때,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돼."

b "....."

"브랜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with dissolve

m "...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후... 쫓겨오듯 이 곳으로 이사와서... 사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m "마음이 많이 그랬어."

m "그럴 때 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날씨가 좋은 날 말이야? 그냥 저렇게... 지나가면서 떠드는 사람들이나, 저기 피어 있는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그런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나아지고는 하더라구."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한 명 뿐인 가족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헤어짐을 겪게 되잖아."

m "아 — 너무 무거운 얘기였나? 하하하. 그냥 브랜든을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show brandon oh at left

b "....."

"브랜든은 묵묵히 내 말을 들어주면서 저 먼 곳을 바라봤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질이고, 그 바람에 들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m "뭐... 그래서 말인데, 저기 피어있는 꽃들 말야. 예쁘지 않아?"

m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dissolve

b "마리아."

b "무슨 꽃을... 좋아해?"

m "나? 음... 나는! 제비꽃, 히야신스... 음... 또, 그 움직이는 잎 있잖아. 뭐였지?"

b "....미모사. 를 말하는 건가."

m "아— 응, 미모사. 미모사도 꽃이 수수하지만 아름다워서 좋아해."

b "아아."

m "왜? 브랜든도, 꽃에 관심이 있어?"

b "...."

"브랜든은 그저 나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지을 뿐이었다."

m "앞으로, 브랜든만 괜찮다면 가끔씩 이렇게 피크닉같이 같이 도시락을 먹자."

m "브랜든, 여태까지 안 해본 것들이 많잖아. 괜찮다면, 나와 같이 하나씩 해 보자. 피크닉도 가고.. 저번처럼 놀이공원에도 가고. 이런 것들 말이야."

b "....."

m "브랜든은 그동안 너무 못 해본 게 많으니까, 좀 더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해."

m "브랜든이 혼자서 그러는 게 어렵다면, 내가 같이 있어줄게."

show brandon uh at left with dissolve

b "....."

stop music fadeout 4.0

m "브랜든은 이런 일을 스스로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같이 챙겨주면 좋잖아."

b "마리아, 나는."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dissolve

"브랜든은 돌연 심각한 얼굴을 하고 내 쪽을 바라봤다."

b "나는... 나는 그런 일들과 어울리지 않아."

m "뭐야, 브랜든. 브랜든이 과묵하지만 사실 알잖아, 나도 브랜든도, 브랜든이 사실 이런 걸
—"

b "아냐, 마리아. 그런 말이 아니야..."

show maria sad at right

"브랜든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브랜든이 내 말을 가로챈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무슨 중요한 말이라도 하려는 걸까."

b "나는,"

b "나는...."

b "나는....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아."

"....."

"브랜든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b "나는, 나는 마리아. 마리아, 나는.... 나는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

b ".....미안해."

"브랜든은 먹던 도시락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가만히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얼굴이 너무 슬퍼보여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브랜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지만, 나는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브랜든과 도시락을 먹으면서 분위기 좋게 데이트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두워져, 어느새 수업 시간이 다가와서 헤어지게 되었다."

"....."

"브랜든,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브랜든의 회사를 찾아갈지 고민하기

label interlude9 :

hide maria

hide brandon

stop music fadeout 1.0

scene bg roomright with dissolve

play music "/bgm/Dreams_Become_Real.mp3" fadein 5.0 fadeout 4.0 loop

"브랜든과 그런 식으로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다."

"학기가 끝나치고, 여름방학도 지나갔다."

"그동안 브랜든에게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

"내가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미안하다거나 바쁘다는 말만 한 후 끊어지기가 일수였다."

"원래 자주 연락을 하거나 오래 통화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번에 그런 식으로 헤어지고 나니 솔직히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었다."

"혹시 몰라서 해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애매한 답변만 할 뿐이었다."

show harry default at left with easeinlef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right

m "해리, 안녕. 나야... 마리아. 브랜든에게 번호를 받아서, 연락했어."

h "여보세요? 아아, 마리아! 어떤 일이야. 번호도 몰랐었는데. 이 참에 저장해둬야 겠는걸. 무슨 일이라도?"

m "브랜든에 관련된 일인데...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h "뭐야, 연애 상담? 그 녀석, 과묵하니까 말이지— 무뚝뚝한 남자라, 마리아. 고생하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m "아냐... 그런 거."

m "브랜든이 잘못된 게 아니야."

h "뭐야, 둘이서 싸우기라도 한건가? 무슨 일이야?"

m "브랜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브랜든 말이야...."

m "아니, 해리도 브랜든도."

m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거야? 요새, 무슨 일이라도 있는거야? 뭔가에 휘말린 거야?"

m "혹시 예전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브랜든과 해리는, 예전에 조금 질이 안 좋은 패거리 안에 있었다."

"물론...그들이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여러 질 안 좋은 곳의 일을 돕는다거나, 몇 가지의 폭력 사건엔 연루되었다고 들었다."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show harry neutral at left

h "....."

h "마리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말해 줬을 텐데...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m "브랜든이, 이상해. 브랜든은.... 뭐라고 할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새 어떤 일에 휘말린 것 처럼... 위태위태해 보이는 일이 있었어."

b "브랜든과 싸우기라도 한 거야?"

m "그건...아니야. 그렇지만 평소의 브랜든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날은 달랐어. 그래서 나는..... 브랜든과 같이 회사를 다니는 해리라면 혹시. 하고 전화를 걸어본 거야."

h "마리아, 브랜든과는 나도 자주 만나지 못해. 일하고 있는 곳이 다르거든. 그래서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없어."

h "브랜든이 이상했다고 하는 것과... 회사의 일과 뭔가 관계가 있는 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든이 하는 일과는 썩 다르거든."

m "해리, 브랜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m "혹시, 직장생활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브랜든, 다시 그런...위험한 일을 하거나 하는 건..."

show harry deadeye

h "무슨 소리야, 마리아?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라니까 — 정말. 걱정도 많아. 걱정하지 말라고, 이 해리 맥도웰이, 증명할 테니까. 브랜든에게 연락이라도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

hide harry

"해리와 통화는 수확 없이 끝났고, 브랜튼과의 연락이 잘 닿지 않았던 나는 브랜튼을 찾아가하기로 결정했다."

label brandonsearch1 :

define brandonsearch = 0

"나는..."

menu:

"강변쪽으로 찾아가 본다.":

call riverside from _call_riverside

if brandonsearch < 2 :

jump brandonsearch1

else :

jump brandonsearch2

"빌딩가로 찾아가 본다.":

call poorland from _call_poorland

if brandonsearch < 2 :

jump brandonsearch1

else :

jump brandonsearch2

"경마장으로 찾아가 본다.":

call building from _call_building

if brandonsearch < 2 :

jump brandonsearch1

else :

jump brandonsearch2

label riverside :

\$ brandonsearch += 1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riverside1 with fade

"항상 시내를 나가려면 이 강변을 통하게 된다."

"저번에도 여기서 해리를 마주쳤던 것을 생각해낸 나는 무작정 강변을 찾아나섰다."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m "날이 많이 덥네..."

"무작정 나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많은 강변에서 브랜튼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강변을 걸다가 해리와 마주쳤던 아이스 크림 가게를 둘러보거나 했지만, 브랜든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해리에게 다시 연락해볼까도 고민해봤지만 소용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m "...내가 과민한 걸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름아닌 브랜든의 일이기 때문에..."

"강가를 계속 정처없이 걸어다녀 보았지만... 이 곳은 아닌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브랜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return

label poorland :

\$ brandonsearch += 1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buildingchon with fade

" 시내에서 가장 소식이 빠른 곳이라면 역시 이 곳이다."

"혹시 브랜든이나 해리에 대한 말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한 나는 빌딩촌으로 향했다."

"이 곳의 카페나 식당에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나는 빌딩촌의 가장 인기좋은 야외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가만히 앉아 사람들을 둘러봤다."

"몇 명인가의 입에서 「밀레니온」이라는 회사에 대해 얘기하는 것 빼고는 해리나 브랜든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m "또, 헛걸음인가...."

"알고 있다. 이런식으로 무작정 마음만 앞서서, 아무 곳이나 나다닌다고 해서 어떤 힌트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정도는..."

"그렇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로 모르겠다."

"시내를 조금 돌아다녀 보았지만, 역시 소용없는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브랜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return

label building :

\$ brandonsearch += 1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blurroad with fade

"브랜드이 전에 경마장을 들른 적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들렀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경마장에 찾아갔을 때, 분위기가 나빠 보이는 아저씨들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show maria frightened with dissolve

m "웃... 브랜드....."

"아무래도, 이 곳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여자는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다 아저씨들과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에 오래 머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

"몇 경마꾼들이 내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브랜드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다."

"브랜드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서 경마장으로 찾아와보긴 했지만... 이 곳을 더 뒤져보아도 허탕이라고 생각한다."

"어디로 가야 브랜드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return

label brandonsearch2 :

"브랜드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왜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인지, 또 무슨 위험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닐지..."

"브랜드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브랜드과 해리는, 전에 마을의 유명한 질 안좋은 패거리에게 속해 있었었다."

"사실 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을에 안 좋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 그들을 만나봤을 때, 나쁜 사람들이라는 인상은 없었지만.... 사실 뒤통수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내가 살던 마을은 — 그런 곳이었다."

"질이 안 좋은 패거리들과, 술집, 가난한 아이들... 삼촌은 다행히도 도시에서 건너와 그렇게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동네 자체가 썩 빈궁했다."

"그러니, 그런 질 안좋은 젊은이 패거리들이 생겨나는 것도 당연지사."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m "....."

"그 패거리에게 속해 있던 브랜드은....."

m "아마도, 브랜드도..."

"내 앞에서 티를 내지 않고, 나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을 뿐..."

"브랜든도, 그리고 해리도.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브랜든도 이 도시로 건너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 너무나도 안도했다."

"브랜든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해서 —"

show maria eyeclosed

m "정말 다행이야."

m "만약, 이번에도 그런 일에 브랜든이 휘말린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것은, 정말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m "브랜든은, 항상..."

"나는, 나를 불량배에게서 구해줄 때 빼고는 내 앞에서 브랜든이 사람에게 주먹을 쓰는 것은 커녕 언성을 높이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브랜든은 항상, 동네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

"브랜든은 곤란에 처한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주인에게 버려진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줬으며, 남몰래 사정이 어려운 가게들을 도와주곤 했다."

"그는 절대, 다정한 사람이다."

"정말로...싸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몇 번 헛걸음을 한 후, 브랜든에게는 미안하지만, 브랜든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그리고, 전에 살던 곳..."

"아무래도 뒷조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마음속으로 피하고 있던 선택지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골라야 할 때지."

"나는.."

define brandonfind = 0

menu :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를 찾아간다." :

"브랜든은 꺼려했지만, 미안하지만 역시 회사로 찾아오는 게 브랜든을 찾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가 있는 장소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scene bg magrid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with easeinbottom

m "분명 이 근방일 텐데...."

"브랜든과 해리는 분명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를 다닌다고 했다."

m "아, 이 빌딩 전부가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였어? 우와아..."

"아주 큰 빌딩 몇 채가 모두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인 모양이었다."
"정말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닐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물어보자."

```
if brandonfind == 0 :  
    call magrid_s  
else :  
    jump brandonsearch3
```

"전에 살던 곳을 찾아간다." :

```
if brandonfind == 0 :  
    call motomachi  
else :  
    jump brandonsearch3
```

label magrid_s :

```
define magridpoint = 0  
scene bg reception with dissolve  
play sound "/bgm/button.wav"
```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는, 내가 이 동네로 이사오기 전에도 이름을 들어 봤을 정도의 큰 회사다."

"직접 찾아와보니, 확실히 더 와닿았다."

"몇 채의 빌딩이 이 회사의 것인지 아득했다."

"해리와 브랜든은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건가?"

"이 정도의 대기업인줄은 정말 몰랐다."

"건물 몇 개인가가 이어져, 몇십 층인지조차 세기 힘든 고층의 건물을 바라보며, 우선은 인포데스크로 가서 무어라도 여쭙보는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label magrid :

"건물에는 두 개의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다."

"당신은 한 데스크에 한 번, 총 두 번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가서, 무엇을 물어볼까."

menu :

"회사에 대해 묻는다." :

```
call magrid_1 from _call_magrid_1  
if magridpoint <2 :
```

```
    jump magrid
else:
    jump magrid2
```

```
"브랜드에 대해 묻는다." :
    call magrid_2 from _call_magrid_2
    if magridpoint <2 :
        jump magrid
    else:
        jump magrid2
```

```
"해리에 대해 묻는다." :
    jump magrid_3
```

```
"회사 사장에 대해 묻는다." :
    call magrid_4 from _call_magrid_4
    if magridpoint <2 :
        jump magrid
    else:
        jump magrid2
```

```
label magrid_1 :
    $magridpoint +=1
```

scene bg reception with fade

"해리와 브랜드는, 왠지 모르게 회사에 대해 자세히 물으면 대답해주지 않는다."
"먼저번의 해리와의 통화에서도,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무언가의 직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대해 묻고 싶어 찾아왔다며 리셉션에 물었다."

mag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트 패트릭 신문사의 기자, 알렌 워커라고 합니다."
mag "예, 그런데요?"
m "이번에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 심층취재로 우수기업 홍보 기사를 실으려고 하는데, 회사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서 좀 여쭙 수 있을까요?"
mag "물론이죠. 17층으로 올라가세요."

scene bg bigwhiteroom with fade
play sound "/bgm/elevator.wav"

"올라온 큰 접견실에서는 안내인으로 보이시는 분이 회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셨다."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란, 작은 석유회사로 시작해 지금은 사회 여러 분야로 진출했다는 것."
"금융, 정치 쪽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교육업도 시작했으니 복지쪽으로 힘쓰는 회사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확실히 대기업이기는 하구나... 굉장히 여러 분야에 지점이 있고, 브랜든도 아마 그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는 거겠지."

"무언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return

label magrid_2 :

\$magridpoint +=1

scene bg reception with fade

"브랜든 히트라는 사원에 대해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여, 나는 브랜든 히트라는 사원에 대해 물었다."

m "저, 회사에 브랜든 히트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요."

mag "네, 제가 한번 자원분이 근무하시는 부서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m "네. 기다릴게요."

"잠시간 기다렸을까, 안내원분이 곤혹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mag "죄송하지만, 자원분과는 무슨 사이신지... 제가 지금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 회사 지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한데..."

m "네... 브랜든과는 친구사이인데,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그만 이렇게 찾아오고 말았어요."

mag "저희 회사 규칙상 자원분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m "아, 아뇨. 번호는 가지고 있지만... 회사로 찾아와서 직접 만날 수는 없을까 하고, 그만."

mag "브랜든 히트 — 분이라... 제가 지점쪽 직원분께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지점이 하도 많아서 번호가 뒤죽박죽이라서요 —"

"브랜든은 확실히 회사에 다니고는 있지만, 아마 이 본사에서 근무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게 신경쓰여서 그간 말을 피했던 걸까?"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브랜든을 이 건물에서 찾아도 소용 없을 듯 하다."

"무언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return

label magrid_3 :

\$magridpoint +=1

\$truthpoint += 1

scene bg reception with fade

"해리 맥도웰이라는 사원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다."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저, 회사에 해리 맥도웰이라는 분께서 근무 하시는지..."

mag "아, 해리 씨요?"

"안내원은 밝게 웃으며 답했다."

"해리와 아는 사이인 듯해, 얘기를 더 붙여봤다."

mag "그럼요. 근무 하시죠. 무슨 일이세요?"

m "아, 저는, 해리와 아는 사이인데... 마리아라고 하면 아마 해리도 알 거예요. 저희 사이
일로 좀 말할 것이 있어서..."

mag "어머 — 해리 씨, 또.... 아, 무슨 일인지 알겠네요. 38층으로 올라가세요."

"안내원은 해리와 나의 사이를 오해한 듯 하다."

"덕분에 쉽게 출입할 수 있었지만.... 해리 맥도웰이라는 남자의 여자관계는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원."

scene bg bigblackroom with fade

play sound "/bgm/elevator.wav"

"안내해 준 층으로 올라오니 접견실이 있었다."

"잠시 기다리니 안내원분이 나오셔서 말을 걸어왔다."

m "해리 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mag "실례지만, 맥도웰 씨의 여자친구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아뇨! 전 그런 일로 온 게 아니예요. 해리와 그쪽 분들에 대해 여쭙볼 일이 있어서 온
거라구요."

m "브랜든, 브랜든과 해리의 친구예요. 그렇게 해리에게 전하면 분명..."

mag "....그렇다면, 「조직」의 사람입니까."

mag "무슨 일이죠?"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조직」...?"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리와 브랜든에 대해 찾고 있다면, 대강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안내원분은 가만히 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에 연락했다."

"조금 기다리자 해리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hide maria

play sound "/bgm/door.wav"

show harry neutral with moveinright

m "해리, 저... 미안해. 브랜든 일 때문에..."

h "마리아."

h "여긴, 어떤 일이야?"

show harry deadsmile

h "전화로 말했을 텐데. 회사까지 찾아오다니...."

h "브랜든에겐, 내가 연락하지. XX씨는 나중에 다시 면담하죠."

mag "죄, 죄송합니다!"

mag "저는 「조직」의 분인 줄 알고 그만... 히트분의 이름을 말씀하시길래... 죄송합니다!"

show harry deadeye

h "그만. 됐어. 이제 나가 보세요."

h "마리아, 미안해... 저 분이 아직 신입이라서, 마리아에게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show harry default with dissolve

h "브랜든 쪽은 모르겠지만, 나도 요새 영업일로 여기저기 다다니고 하느라 바빴어.
브랜든은... 나와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h "사실은, 그게 신경이 쓰였던 걸지도 몰라서. 나도 부러 말을 돌렸었거든."

show harry smile

h "그... 사귀는 사람으로서 나와 비교가 될 까봐 걱정했던 걸 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을 못
했어. 미안해."

m "그런... 정말 그런 점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show harry default

h "여하튼지, 미안해. 브랜든에게는 내가 다시 말할게. 내가 우선 대신 사과할게."

h "친구의 부끄러운 점 정도는... 숨겨주고 싶은 거잖아? 마리아라면 이해해줄거라고 믿어."

h "누구나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런 사실을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

hide harry

show maria frightened with dissolve

m "....나는, 그런 건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데..."

m "브랜든, 그런 걸 신경쓰다니....정말로 바보 같잖아. 나는.... 그런걸로 브랜든이나 해리를
비교하고 싶지 않아."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바보같은 이야기였다."

".....그렇지만."

jump magrid3

label magrid_4 :

\$magridpoint +=1

scene bg reception with fade

"회사 사장에 대해 물어보면, 회사에 대해 조사하거나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나는 회사 사장에 대해 물어봤다."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안녕하세요, 회사 지배인분에 대해 좀 여쭙 수 있을까요?"

mag "아, 칼드웰 사장님이요? 무슨 일이세요?"

"칼드웰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가?"

m "네. 제가 경영학과 학생인데, 이런 훌륭한 기업의 사장님의 일화에 대해 좀 조사하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m "괜찮다면 홍보 자료나... 아니면 관련된 분께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mag "네. 물론이죠. 한 층만 더 올라가시면, 안내인분께서 회사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어머... 과제를 굉장히 성실히 하네요? 훌륭해요. 힘내요!"

scene bg bigwhiteroom with fade

"올라온 접견실에는 회사에 대해 여러 서적과 홍보 잡지 등이 꽂혀있었다."

"나는 몇 권 챙겨서 읽어보면서, 안내인분을 기다렸다."

m "아, 안녕하세요!"

mag "안녕하세요! 학생 분이시라고요, 저희가 최근 대학교 지원 사업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부디..."

"안내원 분은 나를 지나치게 환대하면서 맞아주셨다."

"보통, 대학생이 회사에 대해 물으러 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대해 주나...?"

"더더욱 수상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m "아, 저는... 마리아 아사기라고 합니다만... 별 걸 하러 온 건 아니고요.."

mag "네,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정말 반갑습니다 —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m "예?"

mag "아, 아니. 마리아씨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 — 정말. 마리아씨네 대학교 출신이 저희 회사에도 많답니다."

mag "제가 무슨 소리를.... 「빅 대디」에게 한 소리 들겠군요, 하하! 자, 사양하지 말고, 차라도 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잔 커피를 따라주며 권하는데, 나는..."

menu :

"감사히 마신다." :

m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거절한다." :

m "죄송합니다, 커피는 마시지 않아요."

mag "아, 그럼 녹차? 홍차? 아니면 학생분이시니 주스라도 한 잔 드릴까요?"
m "아뇨...저는"
mag "날이 더운데 한 잔 하시면서 얘기해요. 과제 때문에 오셨다면서요? 정말
보기도문 학생이예요."
m "그, 감사합니다...네. 주스로 주세요."

"한 잔 음료를 마시면서 회사의 비전과 사장님의 경영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회사에
대한 홍보를 많이 부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굉장히 진취적인 사장님과 그런 직원분들인 것 같다..."

"무언가의 힌트를 얻은 듯 하다."

return

#해리와 단서가 없었을 때

label magrid2 :

play sound "/bgm/button.wav"
"묻고 나서, 얻은 정보로 생각해보면 —"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m "브랜든. 정말 이런 걸 신경쓰고 있었던 말야?!"

"얼마만큼 바보같은 남자였던 걸까, 뭐가 자기는 안 된다 어쩌구 저쩌구야. 정말. 이런 걸
내가 신경쓸거라고 생각했다는 걸까"
"진지하게 걱정한 자신이 바보 같았다."

m "해리의 말이 맞았어. 아— 브랜든 정말. 바보같이."

"브랜든은 자신과 해리를 내가 비교할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런 건,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jump brandonsearch3

#해리와 단서가 있었을 때

label magrid3 :

hide harry

"과연..."
play sound "/bgm/button.wav"
"「조직」"
"이라고 분명히, 안내원분이 말했다."
"또 그 경직된 분위기는 뭔가 이상했다."
"해리와 브랜든, 그리고 이 회사에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
"브랜든도, 해리도, 다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어."

jump brandonsearch3

label motomachi :

play sound "/bgm/button.wav"

stop music fadeout 4.0

play music "/bgm/Heartbreaking.mp3" fadein 1.0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브랜든이 살던 집이나... 그런 곳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버스를 타고 원래 살던 동네까지 가보기로 했다"

scene bg poorlandscape with dissolve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m "그렇지만.. 뭐부터 찾아보아야 할지."

"브랜든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왔던 동네이다."

"우선은 삼촌과 살던 집을 들렀다가, 묘지로 찾아가기로 했다."

scene bg poor_grave with dissolve

m "삼촌, 저 왔어요."

"삼촌이 불의의 총격사고로 돌아가신 후, 장례식만 겨우 마치고 건너온 나였다."

"그간 이러저런 핑계로 묘지조차 찾아가지 못했다."

"묘지에서 가볍게 묵념을 했다."

show maria sad_cry

"묘 앞에서 잠시 서 있자, 눈물이 떨어지고 말았다."

"내 삼촌은, 사실 내 친 삼촌이 아니다."

"어렸을 적, 버려진 나를 신생아 때부터 주워서 길러 주신 분이시다."

"나의 또 다른 생명의 은인인 셈이다."

"그래서 내게는 가족이 삼촌밖에 없다."

"그런 삼촌은, 어느 날 갑자기 총격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런 마을에서도 나를 고생길이라곤 걱지 않게 키워주셨다."

"...지금, 삼촌이... 많이 그립다."

scene bg poor_road with dissolve

"다시 돌아온 고향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곳이었다."
"허름한 사람들의 차림새, 낮은 건물들.. 더러운 거리나, 술에 취해 있는 부랑자들."
"그렇지만, 또 고향에 돌아온 기분에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한 것도 사실이었다"

show maria default

m "다시 살던 곳에 오니까, 그래도 반가운 느낌이 드는걸."
m "브랜든이 살던 집 쪽을 찾아가 볼까?"

"그러나, 원래 있었던 브랜든의 집과 그 근처의 건물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show maria sad

m "....."
m "이래서야 제대로 알 수가..."

"브랜든이 해리들과 살던 집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아무래도 무작정 찾아다니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브랜든과 알고 지냈던 동네 사람들에게 브랜든이나 해리의 소식을 묻기로 했다."

"나는..."

label machi :

stop music fadeout 4.0

define machipoint = 0

menu :

"브랜든에 대해 묻는다." :
call machi_1 from _call_machi_1
if machipoint <4 :
jump machi
else:
jump brandonsearch3

"해리에 대해 묻는다." :
call machi_2 from _call_machi_2
if machipoint <4 :
jump machi
else:
jump brandonsearch3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에 대해 묻는다." :

```
call machi_3 from _call_machi_3
if machipoint <4 :
    jump machi
else:
    jump brandonsearch3
```

```
"해리 패거리에 대해 묻는다." :
call machi_4 from _call_machi_4
if machipoint <4 :
    jump machi
else:
    jump brandonsearch3
```

```
label machi_1 :
    $machipoint += 1
```

"마을 사람들에게 브랜든에 대해 물었다."
"브랜든 히트."

"과묵하고 조용하며, 강한 사나이."
"마을 사람들에게 브랜든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마을 분들은, 여태 브랜든이 자신들을 도와 줬던 일들을 얘기해주셨다."

show maria sad with dissolve

m "그런 건, 저도 안다구요..."

hide maria

"브랜든의 행방에 대해 묻자, 해리와 함께 도시로 건너갔다는 것 외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듯 했다."
"다른 키워드로 물어보자."

return

```
label machi_2 :
    $machipoint += 1
```

"마을 사람들에게 해리에 대해 물었다."
"해리 맥도웰."

"경박하지만 밝으며, 꿈이 있는 사나이."
"마을 사람들에게 브랜든은, 나쁘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몇 여자들이 해리에 대해 구설수를 전해줬다."
"나는 잘 몰랐지만, 이 마을에 살 때도 해리는 여성 편력이 안 좋았던 모양이다."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해리에 대한 설명... 보다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가 필요한데."

hide maria

"해리의 행방에 대해 묻자, 브랜든과 함께 도시로 건너갔다는 것 외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듯 했다"

"다른 키워드로 물어보자."

return

label machi_3 :

\$machipoint += 1

"마을 사람들에게 해리와 브랜든이 취업한 회사에 대해 물었다."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

"여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인 듯 해 해리와 브랜든에 대한 칭찬과 부러움이 가득한 대화가 오갔다."

show maria eyeclosed with dissolve

m "나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더니,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냐는 말을 들어버렸지..."

hide maria

"둘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잔뜩 좋은 말을 들었는데다, 나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냐는 공격아닌 공격을 받아버렸다."

"다른 키워드로... 물어보자."

return

label machi_4 :

\$machipoint += 1

"마을 사람들에게 해리와 다니는 패거리들에 대해 물었다"

"그들의 친구라면 둘의 소식도 알고 있지 않을까?"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저어, 케니 분들은 혹시 어디에...?"

"그러나,"

"브랜든들이 건너가고 난 후 그 분들이 더이상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같이 다녔던 브랜든과 해리는 도시로 갔으니, 모임이 해체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 후에 마을에서도 이사를 간 것일까?"

hide maria

"브랜든도 해리도, 그래서 친구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른 키워드로 물어보자."

return

label brandonsearch3 :

stop music fadeout 1.0

scene bg road2 with fade

"나의 브랜든 찾기는 우선 이렇게 끝마쳤다."

"우선은, 지금까지 얻은 정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중이라도 브랜든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하루종일 여기저기 들쭉시고 다녔더니, 정말로 몸이 피곤했다."

m "자, 집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피곤한 하루였다."

scene bg room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그래도 나가서 알아본 게 헛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자 피곤한만큼 보상받은 느낌은 들었다"

"너무 피곤했던 나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jump interlude10

#브랜든과 다시 연락이 닿다

label interlude10 :

stop music fadeout 4.0

hide maria

scene bg room2 with fade

play sound "/bgm/Mechanical_Clock_Ring.mp3"

"시간은 흐르고 흘러, 또다시 계절이 바뀌었다."

"이 도시에서 새로 맞는 새해와 겨울이었다."

"4학년을 앞두고, 더더욱 바빠져, 잠시 브랜든에 대한 생각은 잊고 있었다"

show maria sad with easeinbottom

m "으,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엉망으로 한 것 같은데...."
"학교를 가기 전, 집 전화벨이 울렸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play music "/bgm/Push_Me.mp3" fadein 3.0 fadeout 4.0 loop

m "여보세요?"
b "...마리아."

"정말로 오랜만에, 브랜든이 전화를 걸어왔다."

m "브랜든,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그간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었잖아."

show brandon uh at left

b "정말, 미안해....회사 일로 여러가지로 바빴어. 그래서.. 신년이고 해서...연락했어."
m "브랜든, 한 톨 쏘기야. 아무리 브랜든이라도 너무 오랜만이니까 나 조금 화날지도 몰라 —"

"장난스럽게 으름장을 놓자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하는 브랜든의 목소리가 들렸다."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hpunch

b "마, 마리아..... 정말로, 정말로 미안해. 나는..."
m "하하하, 됐어! 그럼 오늘 저녁, 브랜든이 사는 걸로. 이번엔 어디로 갈 건지 기대할 거야."
b "...!"
b "응. 꼭 그렇게 마리아. 오늘 만나자."

hide brandon

scene bg univ with fade
play sound "/bgm/Footsteps_concrete.mp3"

show maria smile at right

"학교를 나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볍다."
"아직까진 날씨가 쌀쌀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워진 것이다."
"브랜든이 오늘은 식사장소를 찾아보기로 했는데, 나름 기대되기도 했다."

m "브랜든, 어떤 곳을 소개할 지 모르겠는데?"

"뭔가 브랜든이라면 허름한 선물집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르겠다."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해리처럼 격식있는 장소를 다닐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보니, 오늘은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브랜든이 먼저 만나자고 한 날이었다."

m "어머, 브랜든. 꽤 발전했다는 걸까?"

"왠지 모르게 나오는 미소를 지으며, 수업이 끝난 후 브랜든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scene bg riverside2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m "브랜든, 어디려나..."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moveinleft
play sound "/bgm/Breathing_Running.mp3"

b "마, 마리아."

"브랜든은 나를 보고 허둥지둥 뛰어왔다"

"정말로 내가 자신에게 화를 낼거라고 생각했는지, 브랜든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해왔다."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with dissolve

b "마리아, 그 동안... 제대로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마리아가, 그렇게 신경쓰고 있는 줄은 몰랐어. 정말...미안해."

"몇번이고 고개를 꾸벅 숙여가며 사과하는 브랜든을 보니 괜시리 웃음이 나왔다."

"갑자기 그런식으로 연락이 두절된 데에 대해 한 마디 해주겠다는 마음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정을 들어 두기도 했고... 지금은, 브랜든을 다시 만난 데에 집중하고 싶다."

show maria smile at right

m "정말... 오늘 제대로 에스코트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거야? 브랜든. 그 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네 생각 많이 했었어."

b "....."

"브랜든은 이쪽이라면서 식당가로 향했다."

stop music fadeout 4.0

scene bg res with fade

"브랜든이 알아온 곳은, 해리와 간 곳 만큼 고급스럽고, 깔끔한 레스토랑이었다."

play music "/bgm/Be_Bop_25.mp3" fadein 5.0 fadeout 1.0 loop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우..우와."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moveinright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moveinleft

b "마리아가, 좋아할까 생각해서...."
b "알아봤는데, 마음에 들 지 모르겠어..."

"브랜든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내 눈치를 살피고 있다."
"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한 걸까."

mag "브랜든 히트 님 외 한분? 이 쪽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안내받고, 흰 색 테이블보가 깔끔히 씌워진 테이블에 앉았다."
play sound "/bgm/Crowd_Talking.mp3"

show brandon smile at left

m "브랜든, 이런 식당은 어떻게 찾았어? 굉장히 멋져. 분위기도 그렇고... 마음에 들어."
b "마리아가 좋아하다니 다행이야...."
b "해리와, 갔던 곳이 생각나서. 나도 그런 곳을... 찾아봤어..."

"음식의 가격이 꽤 나가는 것 같은데, 브랜든은 이미 코스를 결제해서 예약해놓고 온 모양이다."
"브랜든은 정말 사려깊은 남자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써주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데...."

m "브랜든, 안 그런 척 하면서 엄청 나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던 거 아냐?"
b "...!!!"
m "정말, 그냥 그럴 거면 미리 연락을 한 통 하라구. 내가 그런 걸로 브랜든한테 뭐라고 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말야."
m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브랜든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걸?"

show brandon oh at left

b "마리아, 나,"

mag "주문하신 디너세트 나왔습니다!"

"마침 주문한 요리가 나와서,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play sound "/bgm/Knife_On_plate.mp3"

m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b "응, 회사 일도 회사 일이고 해서. 많이 바빴어.... 마리아는?"

m "나도... 학교를 다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니깐? 뭐가 뭘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벌써 2학년이야. 오 —"

b "마리아, 학교 수업이 많이 어려워?"

m "응. 경영이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니깐? 해리와 브랜든이 정말 대단해. 나는 아직 뭐가 뭘지 배우는걸로 고작이야.."

b "해리는, 마리아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듯 해. 나는 아직 아니지만..."

m "그렇구나— 나도 그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b "..."

b "마리아라면, 훨씬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b "꼭."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브랜든은 내 쪽을 바라봤다."

m "내가? 하하하하! 브랜든, 들어봐... 저번에 과제로 논문을 하나 썼는데 —"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브랜든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얘기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꽤 늦어서, 브랜든이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scene bg riverside1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moveinright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with moveinleft

play sound "/bgm/stepstone_5.wav"

play sound "/bgm/stepstone_6.wav"

m "정말, 바래다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b "아니야, 마리아."

m "브랜든은 너무 상냥해서 탈이야."

b "....."

stop music fadeout 4.0

show brandon default_blush at left

"브랜든은 얼굴을 붉힌 채로 묵묵히 걸었다."

"간만에 만나서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

"입김이 나오는 날씨에 거리를 걸으며, 이 분위기를 만끽하기로 했다."

#4학년 여름, 프롬(추가)

label prom :

hide maria
hide brandon

play sound "/bgm/button.wav"
play music "/bgm/One_Fine_Day.mp3" fadein 10.0 fadeout 4.0 loop
scene bg room with fade

"그 후, 브랜든과 몇 번 더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러가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또 해가 지나가, 어느새 대학교 4학년이다."
"여기로 이사오면서, 대학교에 입학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할 학년인가."
"4학년이 되니 거의 수업보다는, 여러가지 취업 컨설팅이나 특강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다."

scene bg univ2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with dissolve

m "아, 오늘은 경영전략 컨설팅인가."

"개강 후, 다양한 컨설팅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여러 기업들의 컨설팅 특강에 다니거나, 엑스포에 다녀오는 등 아주 바빴다."
"처음에는 회계라고는 이해도 못 했는데, 이제 채권분석이나 노사관계론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 자신이 조금 대견스러웠다."

show maria smile with dissolve

m "나름, 4년간 발전했다는 건가?"

"4년간, 나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봤다."
"물론 당장 먹고 살 돈이 부족하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칼드웰 아저씨께서 항상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빚은 꼭 직접 갚고 싶었다."
"아저씨에게 미안하기도 해서지만, 성인으로서 언제까지 아저씨에게 기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show maria default

m "번듯한 직업을 구해서...아저씨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시기상조려나?"

"칼드웰 아저씨는 번듯한 회사의 CEO시기 때문에, 의미없는 짓일지도 모른다."
"외려 예의에 어긋나는 짓일지도."

m "그렇지만, 아저씨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어라도 갚고 싶은 거지."

"그러려면, 역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며 도서관으로 향했다."

show bg library with fade

show maria default

m "오늘은 고급회계원론이나 좀 보다가 갈까...."

"도서관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았다."

"곧 중간고사고, 나같은 4학년들도 많이 보였다."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올 축제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prom1 "이제 시험만 끝나면 프롬이다!"

prom2 "프롬이 아니지, 그건 고등학교때 하는 거고."

prom1 "그치만 내용은 비슷하잖아, 뭐 입을 거야?"

prom2 "글쎄... 뭐 입을지도 문제지만 파트너는 또 누구로 구하냐. 큰일이다."

"프롬?"

"프롬이라고 하면..."

"아. 고등학교 학년 마지막으로 열리는 댄스 파티의 그 프롬인가."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그런 행사는 없었다."

"그래서 참여해 본 적도 없었다."

prom1 "빨리 시험 끝나고 옷 고르고 싶다...."

prom2 "친구들도 불러야 하는데, 미리 말해두려구."

prom2 "이번에는 유명한 락 밴드도 온대서, 친구들 여럿 불러서 같이 놀 생각이야!"

"와, 우리 학교에 저런 축제도 있었던가?"

"4학년이 될 때 까지 왜 모르고 있었지.... 충격적이다."

prom1 "그나마 우린 3학년이니까 본행사에는 못 들어가잖아, 빨리 내년이 왔으면~"

prom2 "그래도 축제니까 준비는 해 둬야지, 안 그래?"

prom2 "나도 알렌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까? 아니려나...."

prom1 "꿈도 크셔!"

"귀가 솔깃해졌다."

"다음에 친구들에게 프롬에 대해 물어보는것이 좋겠다."

scene bg room with fade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화해보자, 굉장히 호들갑을 떨며 프롬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show maria default

f "마리아, 프롬에 안 가봤다고?!"

f "난 마리아가 완전히 아가씨인줄 알았는데...의외다! 저번에 사교 댄스도 배우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m "응, 여름 방학동안 강습을 받으러 다닌 적이 있어."

f "난 그래서 와...벌써부터 마리아는 프롬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전혀 몰랐어."

f "고등학교때도 안 가본거야?"

show maria eyeclosed

m "학교에서 개최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야. 도서관에서 들었는데 곧 여름에 한다면서?"

f "응! 참가는 원칙적으로는 커플 한 쌍으로 하는 거야."

f "상대는 동급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상급생과 하급생은 물론 졸업생과 학교 밖의 사람이라도 괜찮아."

m "강제로 누구랑 같이 오는 건 아닌가 보네... 웃은 뭇 입어?"

f "일반적으로 남성은 턱시도, 여성은 드레스에 코사지... 라고 하는데 자기 자유 아냐?"

f "그래도 보통 여자애들은 드레스 입는 걸 좋아하지."

f "그래, 부모님께 말씀드려 봐! 드레스 한 벌 맞춰 주실지도... 드레스를 입은 마리아 — 보고 싶다!"

f "만약 누구라도 드레스를 입으려면, 드레스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말야. 나, 카탈로그 잡지까지 있거든."

show maria default

m "프롬에서는, 뭘 하는 거야?"

f "춤 추고, 밥 먹고... 떠돌고 뭐... 그냥 파티지. 파티"

f "이번 회장에서는 락 밴드도 온다니까 분위기도 살 걸."

m "친구들을 불러야 하나? 같이 올 사람이..."

f "어머 — 브랜든 씨 있잖아, 브랜든 씨! 이미 정해진 것 아니었어?"

show maria default_blush

f "나야말로 누구랑 가야 할지...걱정이야. 마리아가 아는 남자라도 있으면 꼭 데려와!"

show maria sad

m "아는 남자... 한 명 있기는 한데."

f "잘생겼어?"

show maria eyeclosed

m "음... 잘생긴 건 맞지. 잘 생겼는데..."

f "어머, 마리아. 잘 생기면 된 거지 남자는. 안 그래? 그럼 그 분도 같이 오시는 걸로 — "

show maria frightened

m "뭐, 잠깐만!"

"친구는 한바탕 웃더니 전화를 끊었다."

"해리를 데려가도 괜찮을까...브랜든은 그렇다 치고..."

"시험이 끝나고 한 번 연락해보는것이 좋겠다."

hide maria

show bg room2 with fade

stop music fadeout 3.0

"시험이 끝나고, 프롬에 초대할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브랜든에게 우선 전화했다."

show maria smile at right

m "여보세요?"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dissolve

b "! 마리아."

b "오래간만이야."

"상기된 브랜든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뭐 기분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m "응, 별 일은 아니고... 아, 기분이 좋아 보이는걸, 브랜든... 뭐 기분좋은 일이라도 있어?"

b "응?"

show brandon smile_blush at left with dissolve

b "오랫만에, 마리아가 전화해 줬으니까."

show maria eyeclosed_blushed at right with dissolve

m "뭐, 뭐야..."

"아무렇지도 않게 가끔씩 브랜든이 저런 말을 해올 때마다,"

"솔직히 정말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지만, 또 간질간질한 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show maria smile_blush at right

m "별 건 아니고, 브랜든을 초대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m "괜찮으면,"

"뭐야, 이거 의외로 떨린다."

"이거...그냥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더 한발짝 나아간 듯한."

"어떻게 보면, 이런 장소에 불러낸다는 건... 그 의미는..."

show maria frightened at right with dissolve

m "학교축제에내파트너로와줄래"

play sound "/bgm/Cartoon_Boing.mp3"

"아 이런.... 이런, 아. 말을 너무 빨리 했다."

show brandon oh at left with dissolve

play sound "/bgm/Cartoon_Cowbell.mp3"

b "에내파트... 뭐라고?"

show maria sad at right

m "...."

"이럴 때만 왜 하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인가."

show maria default at right

m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음... 춤을 추고, 공연도 보고... 뭐 그런 축제야."

m "원래 한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원칙인 모양이야."

m "그래서, 괜찮다면 브랜든을 내 파트너로, 부르고 싶어."

"용기를 내서 다시 한 번 말했다."

play music "/bgm/Where_She_Walks.mp3" fadein 1.0

show maria default_blush at right

m "브랜든 히트 씨, 제 파트너로 함께 해 주시겠어요?"

show brandon oh_blush at left with dissolve

b "마리아....."

b "네, 좋아요...."

"응?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관없나."

b "그런데, 그러면 뭐라도 준비해서 가야 할 지...."

b "나는...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show maria smile_blush at right

m "응? 아, 나도 처음이야. 대강 프롬이라고 불리는 듯 해."

m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는데...우리 학교에서는 4학년의 졸업 파티같이 하는 모양이야."

m "그래서 그 자리를 브랜든과 함께하고 싶었어. 브랜든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잖아."

b "아냐....내가 무슨... 마리아가 열심히 한 거야."

m "브랜든이 있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던 거지."

m "그래서... 이번에 함께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b "응. 꼭 같게."

b "....나를 불러줘서 고마워."

m "응? 아차, 해리도 괜찮으면 같이 와달라고 해 줄 수 있을까?"

b "해리...?"

m "응, 친구는 여럿인 게 좋잖아. 그래서..."

show brandon uh at left

b "응. 그럼 그렇게 전할게. 그 때 만나자."

hide brandon

hide maria

stop music fadeout 3.0

"브랜든과 약속을 잡고 나자 갑작스레 생각나는 게 있었다."

"...."

"분명, 드레스를....입고 오는 거라고 했는데."

"드레스...?"

"옷을 많이 사는 타입이 아니어서 항상 비슷한 옷들만 입고 다녔는데...드레스라니."

"아무래도 그런 쪽에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이런 건 칼드웰 아저씨께 여쭙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m "아저씨께 전화를 드려볼까."

m "여보세요?"

show daddy default at left with dissolve

d "아, 마리아. 이게 얼마만인가.... 여보세요?"

d "전화를 내가 먼저 걸었어야 했는데... 마리아가 바쁠까봐 그러지 못했단다."

d "잘 지냈니? 어떤 일이니..."

"아저씨께서는 간만에 전화한 나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다."

"정말...내 생각뿐인 분이시다."

show maria sad at right

m "칼드웰 아저씨, 죄송해요. 그간...이것저것 바빠서."

d "전에는 브랜든 군 얘기 뿐이더니, 잘 안 되고 있는 거니?"

show maria eyeclosed_blushed at right

"사실, 아저씨께 좀 더 초반에는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쩌다 보니 브랜든의 이야기만 잔뜩 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시니, 영 멋쩍어졌다."

m "아— 아니예요. 학교 프롬 때문에 전화 드린 거라구요."

d "아, 벌써 마리아가 4학년인가. 행사를 지낼 때가 되었구나."

d "그래, 리무진은 몇 대 필요하니?"

play sound "/bgm/Cartoon_Cowbell.mp3"

show maria frightened at right with dissolve

"....."

"이래서, 따로 나와서 살기로 한 거였다."

"칼드웰 아저씨는, 굉장한 회사의 CEO로...대저택에서 살고 계시다."

"얼마나 집이 큰지 과장하면 우리 대학만큼 집이 큰 것 같다."

"처음에 이사왔을 때는 거기서 잠시 묵었지만,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대학과 멀다는 이유로 내 방을 구했다."

"물론, 이 집도 칼드웰 아저씨가 구해 주신 거지만..."

"그런 성같은 대저택에서 산다는 건 역시 어색하다."

m "아니예요! 리무진이라니 — 저는 그냥 드레스를 사려고..."

d "아, 드레스! 맞아. 드레스를 사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d "혹시 주말에 시간이 나면 백화점을 같이 들르면 어떻겠니, 마리아?"

d "불편하다면 혼자 가도 괜찮단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칼드웰 아저씨는 항상 나를 먼저 배려해 주셔서, 내가 불편할까봐 내게 너무 자주 연락을 하시거나 불쑥 찾아오시지 않는 등...굉장한 신사였다."

"단지 자금을 지원해주시는 것 만이 아니라, 나를 가족으로써 생각하고 존중해주시는 거겠지."

"아저씨와 만난 적이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menu:

"아저씨와 함께 가자.":

jump yes_daddy

"혼자 가고 싶다.":

jump no_daddy

label yes_daddy :

"벌써 아저씨를 안 본 지도 꽤 되어간다."

"초반에는 자주 저택에 들렀던 것 같은데... 나도 학교 생활이 바쁘고 하면서 자주 신경쓰지를 못했다."

"그래서, 칼드웰 아저씨와 간만에 만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m "네, 물론이죠."

m "그럼 주말에 백화점 앞에서 뵈어요!"

d "그래, 그러자꾸나."

hide daddy

hide maria

jump prom2

label no_daddy :

"쇼핑을 하는 데 아저씨도 따라오시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아저씨가 지루해하실지도 모른다."

m "음... 아, 그럼 저 혼자 갈까 해요."

d "그래. 드레스를 살 곳은 정해놓았니?"

"아차."

"...드레스라니 전혀 내 분야가 아니다."

"아저씨께 여쭙보아야 겠는데...어떡하지?"

m "음...아니요..."

d "...내가 아는 테일러 샵이 있는데, 괜찮다면 내가 안내해주고 마리아가 스스로 고르는 것은 어떨겠니?"

m "전 아저씨가 지루해하시거나 바쁘실까 봐..."

d "마리아와 간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니?"

d "그럼, 주말에 백화점 앞에서 보자꾸나."

m "네, 감사합니다."

hide daddy

hide maria

jump prom2

label prom2 :

show bg department_store with fade

play music "/bgm/7th_Floor_Tango.mp3" fadein 1.0 fadeout 4.0 loop

"주말에 일어나 아저씨와 약속한 백화점으로 향했다."

"아저씨께서는 교양이 높으시고, 이것저것 사회 경험도 많으시니까... 나 보다는 드레스 고르기에 안목이 있지 않으실까?"

"사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 지도 걱정이었기 때문에, 아저씨가 선뜻 도와주러 온다고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다."

show daddy default at left with easeinlef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easeinright

d "마리아, 많이 기다렸니?"

d "미안하다, 차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약속시간에서 30초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헐레벌떡 뛰어오며 내게 사과하셨다."

m "아니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주차하고 오시느라 늦으신 걸요 월."

d "아니야, 미안하다. 먼저 와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목마르거나 하지는 않니?"

m "아, 괜찮아요. 안은 시원한걸요."

"여름이 한창이라, 오는데 날이 조금 더웠다."

"아저씨께서는 내게 차를 운전하고 다니라며 면허를 따라고 했지만, 아직 따지 않았다."

"아무래도 아저씨께서 주실 차가 너무 고급스러운 세단이기도 했고...."

"기회가 되면 이번 여름방학에 따 뉘야지."

m "음... 그래도, 뭐라도 마실까요?"

d "아, 그러면 15층에 아는 디저트 카페가 하나 있단다."

"아저씨는 백화점 안 쪽의 엘리베이터로 가서, 14층을 누르셨다."

play sound "/bgm/elevator.wav"

m "15층...?"

d "아, 거기서부터는 VIP존이라. 카드를 찍고 출입하면 된단다."

show maria frightened at right

"....."

"언제 생각해도 정말 사는 세계가 다르다...."

"한 회사의 CEO라면 당연하겠지..."

"문득 다시 아저씨가 살고 계신 엄청나게 큰 저택과 아주 고급스러운 차들만 있는 차고가 생각났다..."

"VIP 존으로 가고 있는 건가, 나 지금...."

show maria smile at right

play sound "/bgm/elevator.wav"

"14층에서 내려서, 환대를 받으며 한 층 더 올라갔다."

"한 층 더 올라가자,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페가 보였다."

show bg dessert_cafe with fade

play sound "/bgm/Coffee_Shop.mp3"

m "와...!"

m "엄청 고급스럽네요."

d "아아, 마음에 드니. 마리아. 가볍게 먹고, 드레스를 고르러 가자꾸나."

d "메뉴에서 먹고 싶은 것을 고르렴."

m "네... 음... 음...?"

"메뉴판이 불어로 적혀져 있다...."

"아니, 불어라기보다는.... 프랑스식 요리들이 가득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강 그럴듯한 걸 주문하기로 했다."

m "음... 전, 이걸로?"

d "네, 그럼. 피스타치오 레드후르츠 타르트와, 프로즌 오트 초콜릿을 부탁드립니다."

d "마리아, 홍차 세트를 함께 주문하려고 하는데... 괜찮니?"

m "아, 네!"

show maria default at right

"조금 기다리자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저트들이 나왔다."

"한 입 떠 먹어 보니, 정말로 달콤하고 맛있었다."

m "맛있어...."

play sound "/bgm/Drink_and_Swallow.mp3"

"같이 나온 홍차와 곁들이니 더욱더 완벽한 맛이였다."

"오늘, 드레스를 고르러 나왔을 뿐인데 이런 멋진 곳에 데려와주신 아저씨께 너무
고맙다."

m "정말 맛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m "자주 오시는 곳인가요?"

d "아, 메뉴를 보느라고 가끔 들른단다."

d "참고하기 좋거든."

m "메뉴를? 음~"

"칼드웰 아저씨께서 하는 사업 중 이런 식음료 사업도 있는 걸까?"

"신나서 디저트를 먹느라고, 그 질문은 입 안으로 달콤한 디저트들과 함께 넘어갔다."

d "천천히 먹고, 드레스를 고르러 내려가면 되겠다."

d "마리아의 마음에 드니 다행이네..."

"아저씨와 즐겁게 디저트를 먹으며 대학생활에 대해 얘기했다."

m "그래도 다행이에요 — 아저씨 덕에 사교댄스를 배워놓아서."

m "사실 춤을 추라니, 예전의 저였다면 생각도 못 할 일이라... 아마 참가하지도 않았을
걸요."

m "거기에 드레스라니!"

d "마리아는 워낙 검소해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전부터 몇 벌은 드레스라거나.. 사교를
위한 옷을 사두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랬다간 아저씨와 함께 블랙 카드로 몇백만원어치의 옷을 샀을지 모른다."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러운데다, 확실히...드레스를 사 뒤도 입을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

"오늘은 기왕 사러 온 거, 예쁜 옷으로 고르고 싶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입게 될 지도 모르고...대학교의 마지막이니까."

m "아니예요! 아니예요. 오늘 한 벌 사면 되니까요, 그걸로 입으면 돼요."

"손사래를 치고 홍차를 다 마신 후, 아저씨와 계산하고 아래로 내려왔다."

show bg department_store with fade

"음... 드레스를 파는 곳은 어디로 가봐야 하지..."

d "드레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이 쪽으로 나오면 있단다."

"아저씨가 둘러보는 나를 안내해 주셔서, 그 쪽으로 걸어갔다."

stop music fadeout 4.0

play sound "/bgm/walk.wav"

show bg dress_shop1 with fade

"도착한 곳은 건물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곳의 드레스 샵이었다."

"문 앞에 서니 뭔가...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마저 들기 시작했다."

"항상 편한 옷을 고집해 온 데다, 옷이나 신발...등 여러가지를 많이 사는 타입도 아니었다."

"칼드웰 아저씨는 항상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며 성화셨지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니는 것이 좋다."

"그런데 드레스라니, 이런..."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으니, 칼드웰 아저씨께서 문을 열어주며 안내해주셨다."

play sound "/bgm/door.wav"

d "자, 마리아. 들어가렴"

show bg dress_shop2 with fade

"안에는 멋진 드레스들이 잔뜩 있었다."

hide maria

hide daddy

show maria dress

"Dd"

label prom3 :

#밥 쳐먹고 사교 댄스

label prom4 :

#페벌 <- 제일 잘쓸수 있는부분 (ㅇㄱㅇ
ㅂㅂㅂ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다뒤
짐)(브랜든과 마리아라도 페벌에서 빠갬다!!!!)

#졸업하는 마리아

label interlude12 :

stop music fadeout 4.0

hide maria

hide brandon

play sound "/bgm/button.wav"

scene bg univ with fade

"대학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중 상당 기간은 브랜튼을 불러 같이 수업도 듣고 같이 놀기도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 느낌은 별로 안 들지만."

"그래도 학업 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즐거운 대학 생활에 포함되지 않을까."

"사실, 브랜튼이 없었다면 학교 생활은 훨씬 힘든 생활이 되었을 것이다."

"나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준 브랜튼 덕분에, 무사히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장담할 수 있다."

play music "/bgm/Where_She_Walks.mp3" fadein 5.0 fadeout 1.0 loop

scene bg univ2

"졸업식 당일, 졸업장과 축하 화환을 받고 졸업식장에서 나오는데, 브랜튼이 찾아왔다."

"그의 손엔 색색의 제비꽃과 히야신스, 미모사 등의 꽃이 어우러진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반가움이 컸기에, 난 만면에 웃음을 띠며 브랜튼에게 달려갔다."

show brandon smile at left with dissolve

show maria default at right with dissolve

m "브랜튼-! 와주었구나!"

b "마리아, 졸업 축하해."

m "후훗, 고마워. 근데 이 꽃다발.. 날 위해 가져온 거야?"

b "맨손으로 오기엔 뭐해서.. 근처에서 산 거야."

"그는 얼굴이 빨개진 채 둘러댔지만, 이 꽃다발에서 제비꽃과 미모사 등은 길거리 꽃집에서 흔하게 파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전날 짬, 날 위해 직접 주문제작을 한 거겠지."

"내가 좋아하는 꽃들을 기억해줬다가 이렇게 특별한 날에 한꺼번에 준비해주는 그의 정성에 감동해 마음 속엔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왔다."

show maria smile_blush at right

m "정말 고마워. 내가 좋아하는 꽃들이 잔뜩 있네— 정말 기뻐."

b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m "응. 정말 고마워 브랜튼."

b "....."

"그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자 브랜튼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떨구다가, 같이 마주보며 미소를 지어주었다."

show brandon smile_blush at left

m "졸업식도 끝났고, 브랜든도 이렇게 멋지게 입고 왔으니까, 기념으로 같이 사진 한장 찍을까?"

b "사진..?"

m "응. 브랜든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b "어... 난 사진은 별로.."

show maria sad at right

m "에이~ 그러지 말고 딱 한장만 찍자. 응?"

b "흠...."

m "브랜든은~"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show maria default at right

b "...휴우. 알았어."

m "고마워~!"

"사진 이야기가 나오자 낯설어하는 브랜든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그에게도 오늘을 추억의 한 형태로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다."

"마음같아선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한계가 있으니 이런 기념일, 브랜든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이용해 그와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만한 증표를 만들고자 했다."

m "자 여기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보고 찍는 거야."

b "으응..."

m "자 찍는다— 웃어봐~!"

b "....."

play sound "/bgm/camera-shutter-click.wav"

"찍고 결과물을 보니, 이보다 더 어색할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는 브랜든이 보였다."

show brandon eyeclosed at left

show maria sad at right

m "....."

b "....."

m "....."

show maria eyeclosed at right

m "브랜든, 치—즈. 치—즈 해봐."
m "자, 스마—일. 따라해봐, 스마—일."

show brandon oh at left

b "치...즈."
m "....."

"남들이 보면 분명 우리 꼴은 바보같이 보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브랜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hide maria
play sound "/bgm/camera-shutter-click.wav"
show maria default with moveinright

m "짜잔 —"
b "....마..리아?"

m "브랜든이 사진을 같이 찍기 싫어하니까, 브랜든 사진하고 같이 사진 찍을 거다 뭐."
m "이 정도는 내 자유겠지?"
b "..무, 무슨....그만둬. 같이, 같이 찍어도 나는 괜찮..."
m "아까 나는 사진은 별로... 하면서 빼던 게 누구였더라~? 나는 브랜든 히트 님의 사진하고나 같이 사진 찍을 테니까, 브랜든은 나를 찍어 주면 된다구?"
b "마...마리아."

"브랜든을 약올리며, 싱글벙글 웃어보였다."
"결국 안절부절하는 브랜든을 놀리는 건 그만두고, 친구에게 부탁해 졸업사진을 브랜든과 한 장 같이 찍기로 했다."

show brandon default_blush at Position(xpos = 0.3, xanchor=0.1, ypos=0.05, yanchor=0)
with easeinright

show maria default_blush at Position(xpos = 0.4, xanchor=-0.3, ypos=0.2, yanchor=0)
with easeinright

f "자, 자. 붙어보세요! 더! 더! 찍습니다, 하나 둘!"

"한 장째 사진을 어색한 포즈로 굳어서 찍었을까, 친구가 익살궂게 말을 붙여왔다."

f "그 포즈는 뭐야, 마리아? 남자친구 분도. 영 딱딱해, 딱딱해. 그게 아니죠~ 팔짱! 그래. 팔짱 껴봐요. 자, 친해 보이게~ 더 붙고, 하나 둘!"

show brandon default_blush at Position(xpos = 0.34, xanchor=0.1, ypos=0.05, yanchor=0)
with easeinright

show maria default_blush at Position(xpos = 0.39, xanchor=-0.3, ypos=0.2, yanchor=0)
with easeinleft

b "...!!!"

"브랜든은 내 눈치를 보더니"

"내 팔 안을 부드럽게 껴어 팔짱을 끼고,"

show brandon default_blush at Position(xpos = 0.35, xanchor=0.1, ypos=0.05, yanchor=0)
with easeinright

"내 얼굴을 바라보며 한 번 확인한 후, 앞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f "찍습니다!"

play sound "/bgm/camera-shutter-click.wav"

"친구에게 받아 든 사진엔, 마치 결혼사진을 찍은 것 같은 우리 둘의 모습이 있었다."
"왜인지 부끄러워져서, 사진을 바로 받아 챙겼다."

show maria eyeclosed_blushed at right with vpunch

m "고, 고마워!"

"브랜든은 자기도 보고 싶다는 눈치로 나를 쳐다봤지만, 내가 사진을 가방 속에 넣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듯 했다."

"아무리 브랜든이라도, 결혼 사진이라니! 나도 참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show brandon oh_blush at left

show maria default_blush at right with moveinleft

m "으..."

b "마리아, 저어..."

m "아, 안돼! 사진은 내가 이상하게 나와서, 보여 줄 수 없어!"

b "나도 한 장, 가지고 싶은데..."

m "절. 대. 안돼! 이 사진은... 우리 집에 걸어둘 거야!"

"브랜든은 몇 번 조르더니,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show brandon default at left

b "저, 실례합니다만, 카메라를 다시 빌릴 수 있을까요."

f "응? 물론이죠~ 자, 여기요!"

b "감사합니다."

hide brandon

show brandon smile with moveinleft

"뿔, 하는 사이에 브랜든은, 내 쪽으로 다가와서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하늘로 사진기를 높게 들어 우리 둘의 사진을 한 장 더 찍었다."
play sound "/bgm/camera-shutter-click.wav"

m "ㄷ... 췌, 뭐야!"

b "나도, 마리아와 같이 찍은 사진... 자."

m "나도 보여줘! 뭐야— 브랜든! 빨리, 나도 볼거야 —"

b "안 돼. 이 사진은...그럼, 우리 집에 걸어두는 걸로 할까."

m "뭐어 — 브랜든, 너 정말!"

hide brandon

hide maria

stop music fadeout 5.0

"서로 티격태격하며 사진을 가지고서 실랑이를 하다가, 우리는 크게 웃어버렸다."

"학교를 다니면서, 브랜든과도 많은 일이 있었다."

"우리의 행복했던 나날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거야."